

창원우체국

요금별납

사랑받는 기업, 행복한 사회 메세나가 함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가치있는 나눔을 실천하며
예술이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줍니다.
메세나 기업의 나눔 덕분에 세상은 매일 조금씩 더 아름다워집니다.

경남메세나협회와 함께하시면



-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문화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문화마케팅 · 세미나 등을 통한 기업의
창조경영 및 문화경영 지원



- 도내 우수 공연 및 전시 등
문화프로그램 지원 및 초청



- 경남메세나지 및 언론을 통한
회원기업의 메세나 활동 홍보



MECENAT
with you



문화체육관광부

경남메세나협회는 공익성 기부 대상단체입니다.
문화예술후원금 및 회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리며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F
Tel. 055) 285-5611 Fax 055) 286-5610

Gyeongnam Mecenat



Vol. 40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CONTENTS

스페셜 인터뷰	04	다시 피아노 앞에서, 사람과 음악을 바라보다 - 김대진 피아니스트	포토포엠	28	우포의 아침 Photo by. 김관수
스페셜 테마	08	숨결을 담아, 음악으로 마음을 전하는 - 유채연 플루티스트	메세나 소식	30	메세나로 경남을 빛낸 별들의 축제 - 2025 경남메세나대회
아름다운 동행	12	숫자의 언어와 예술의 감각이 만날 때 서로의 세계를 넓혀준 인연 - (주)에스 × 갤러리 거제		36	LH 아트프렌즈 지원사업
				37	KOEN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38	경남메세나협회 회원사 문화서비스
				39	경남메세나협회 & 고성문화관광재단 업무협약 체결
				4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메세나 인터뷰	16	감동에서 시작된 후원, 경남을 물들이다 - 경남오페라단 정영식 이사장	인조이 컬러	44	매너리즘의 진실
				46	고요 속의 혁명가, 에릭 사티
				49	MZ Player's Playlist
지금 경남예술	20	영화 좀비탈 속 풍경, 경남에 있다			
문화공간	22	국가유산청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26	PAC 갤러리			

Cover Story

찌그러진 토기 대부장경호 (가야4085 / 창녕 교동고분군 주차장고성부지 내 유적, 2013)

이 유물은 창녕 교동고분군에서 출토된 대부장경호로, 다리가 달린 긴 목 향아리이다. 구연부와 동체, 대각 일부가 결실된 상태이며, 색조는 흑회색이고 태토는 경질이다. 제작과 소성 과정에서 기형이 찌그러지고 기포가 다수 발생해 형태적 완성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이러한 흔적은 당시 토기 제작 기술과 소성 환경을 생생히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외면 경부에는 3조의 돌대가 둘러져 있고, 돌대 사이에는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견부에는 파상문이 2단으로 표현되었다. 동체 하단에는 유층문이 2단으로 시문되었고, 대각에도 3조의 돌대와 함께 그 사이에 파상문이 돌아간다. 파상문이 시문된 부분에는 장방형 투창이 마련되어 있으며, 내·외면에는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다. 대각단에서는 회전물손질의 흔적과 짙흔이 확인된다.

이 대부장경호는 완성도가 높은 유물만을 선별하기보다, 가야 문화의 다양한 모습과 제작의 흔적까지 포괄적으로 기록하고자 하는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의 수집·연구 철학을 상징하는 자료로서, 현재 마스크트로 활용되고 있다.

발행인 김태한

발행일 2026. 1. 31.

발행처 경남메세나협회 (Tel. 055 285 561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F

편집인 석수근

진행 경남메세나협회 사무국

기획·디자인 오션커뮤니케이션즈 (Tel.055 296 4995)

다시 피아노 앞에서, 사람과 음악을 바라보다

피아니스트 김대진이 말하는



예술과 교육, 그리고 메세나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 교육자로 살아온 김대진이 총장실을 나와 다시 피아노 앞에 섰다. 연주와 교육, 행정의 시간을 지나며 음악을 통해 사람, 사람을 통해 음악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 인터뷰는 그가 다시 돌아온 자리에서 들려주는 예술과 교육, 그리고 메세나에 대한 이야기다.

Q 한국예술종합학교 제9대 총장직을 마치고 다시 피아니스트이자 교수로 복귀했다. 소감이 궁금하다.

다시 연주자이자 교단에 선 사람으로 돌아오니 익숙하면서도 새롭다. 지난 4년은 예술가라기보다 한 기관의 책임자로 살아온 시간이었고, 그 시간 덕분에 음악과 교육의 본질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

총장직 임기를 마치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아 보니, 음악은 언제나 내 삶의 중심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낀다. 이제는 행정보다는 연주와 수업, 학생들과의 호흡에 집중하며 한 명의 예술가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고 돕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동안 쌓은 경험을 음악과 교육으로 차분히 환원해 나가는 것이 지금 내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Q 피아니스트, 지휘자, 교육자로서의 경험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내게 연주자, 지휘자, 교육자의 역할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진 하나의 흐름이다. 피아노를 치며 쌓은 감각과 음악적 직관은 지휘를 할 때 전체 구조와 호흡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오케스트라 앞에 서며 얻은 시야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음악을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했다. 교육자로서 학생들과 마주하는 시간은 내 음악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학생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더 정확히 이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연주자로서의 태도와 생각도 한층 정제됐다.

결국 이 모든 경험은 서로를 보완하며 나를 조금씩 성장시켜 왔다. 무대에서의 경험은 수업을 더 생생하게 만들었고, 교육 현장에서의 고민은 내 연주와 지휘에 더 깊은 책임감과 진정성을 부여했다.

Q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강점과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가장 큰 강점은 학생들의 뛰어난 잠재력과 교육에 대한 높은 열정이다.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 기본기가 매우 탄탄하고, 목표를 향해 집중하는 힘과 성실함은 세계



어느 무대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는다. 국제 콩쿠르나 해외 무대에서 한국 연주자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기술적 완성도와 성취 중심의 교육이 음악을 깊이 사유하고 스스로 질문하는 과정보다 앞서는 경우도 있다. 이제는 '얼마나 잘 치는가'에서 나아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왜 이 음악을 하는가'를 끊임없이 묻는 교육이 필요하다.

개성과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음악사와 인문적 이해, 앙상블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 그런 균형이 갖춰질 때 우리 음악교육은 기술과 예술성, 깊이를 함께 지닌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 믿는다.

Q 창원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며 경남 문화 생태계를 경험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이었는가.

창원시립교향악단과 함께했던 시간은 내 음악 인생에서도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점은 지역 음악계가 지닌 진정성과 밀도다. 화려함보다는 음악 그 자체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단원들 역시 자부심 속에서 성실하게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관객과 음악의 거리다. 경남의 청중은 연주를 소비하기보다 함께 호흡하고 응답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그 반응은 무대 위 연주자들에게 큰 에너지가 됐다. 음악이 일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

이런 토대 위에서 지역의 교육기관과 공연장, 예술단체들이 더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경남은 자신만의 분명한 음악적 정체성을 지닌 문화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다. 총장직 수행으로 예술감독 인연을 오래 잊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그만큼 경남에서의 기억은 더욱 소중하게 남아 있다.

Q 지역 교향악단과 예술가, 청소년 아티스트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지역 음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행사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과정’을 지켜주는 구조가 필요하다. 지역 교향악단과 예술가, 청소년 아티스트 모두가 각자의 단계에 맞는 성장 경로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지역 교향악단은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예술 비전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함께 지역 기업과 문화 후원 네트워크가 참여하는 구조가 중요하다. 메세나 활동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 자산을 함께 키워가는 인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과 젊은 예술가에게는 무대 경험과 멘토링이 핵심이다. 협연과 마스터클래스, 레지던시를 통해 현장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연결성이며, 그 선순환 속에서 지역 문화는 살아 있는 생태계가 된다.

Q 젊은 예술가들이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과 마음가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젊은 예술가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뛰어난 기술 이전에,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질문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의 태도다. 빠른 성과나 외적인 평가에 흔들리기보다, 왜 이 예술을 선택했는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를 꾸준히 묻는 힘이 결국 긴 시간을 버티게 한다.

또 하나는 시간에 대한 믿음이다. 예술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으며, 성장에는 반드시 시행착오와 기다림이 따른다.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속도를 존중하고, 지금의 부족함을 실패가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미래의 예술가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고립되지 말라는 것이다. 동료와의 교류, 스승과의 대화, 다른 예술 장르와의 만남 속에서 예술가는 더 넓어진다. 무엇보다 음악과 예술을 사랑했던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진심이 있을 때 예술은 사람에게 닿고, 그 울림은 오래 남게 될 것이다.



Q 메세나 활동의 본질적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메세나 활동의 본질적 가치는 예술을 단순한 지원 대상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 사회가 함께 키워야 할 공공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데 있다. 기업의 예술 후원은 이미지 제고나 일회성 기부가 아니라 문화와 창의성이 사회 전반에 스며들도록 돕는 장기적인 투자다.

한국 예술종합학교에서 근무하며 기업의 지속적인 후원이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그 성과가 공연과 국제 무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 역시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예술가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는 동반자가 됐다. 메세나는 예술가에게는 시간과 여유를, 사회에는 창의적 자산을 남긴다. 예술과 기업,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가장 건강한 협력 모델이라 생각한다.

Q 앞으로 경남메세나협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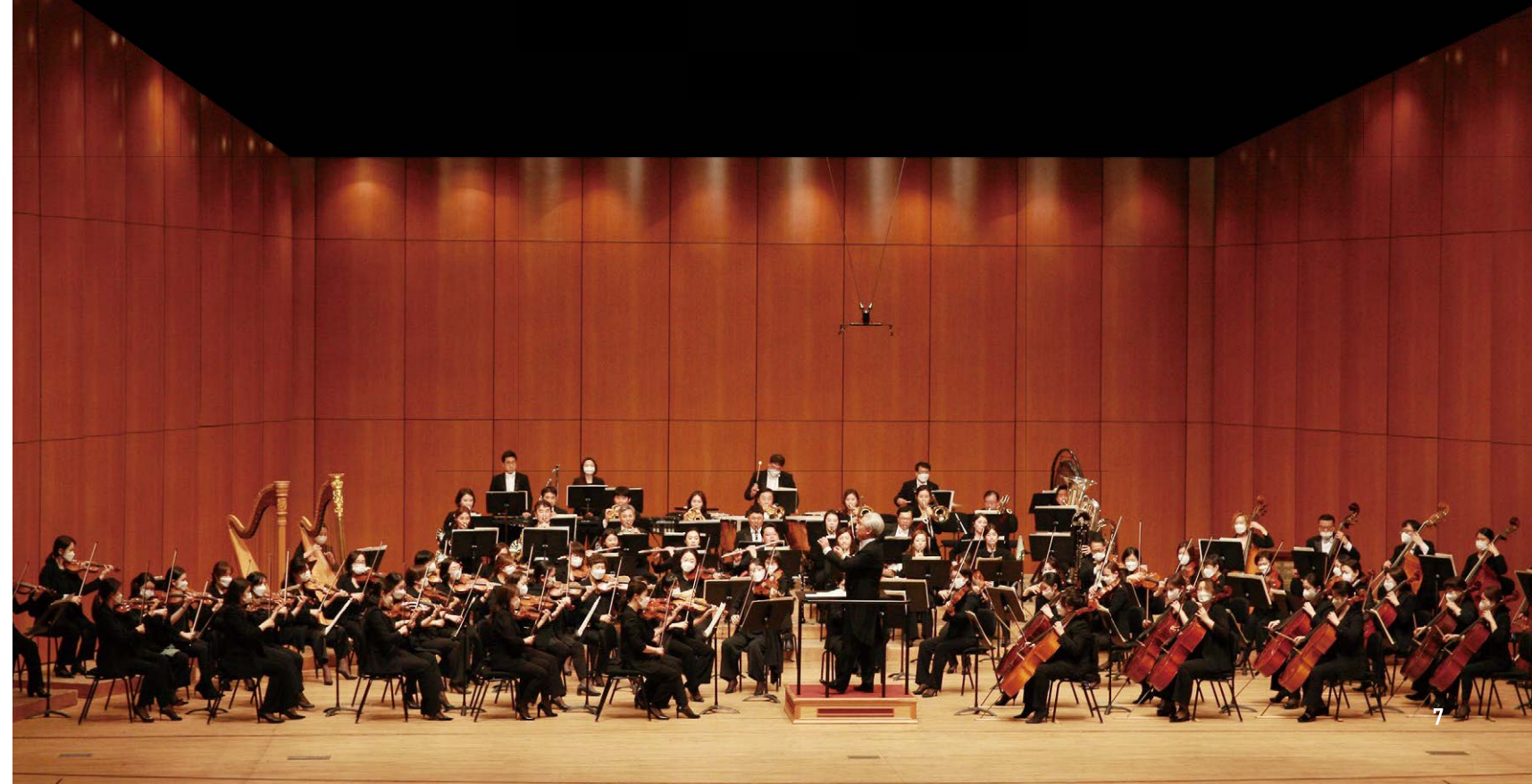
경남메세나협회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지역 예술 생태계’를 만드는 데 중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발성 후원이나 개별 사업을 넘어, 예술가가

지역 안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데 협회의 역량이 집중되면 좋겠다.

우선 지역 예술단체와 예술가를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파트너십 모델이 필요하다. 일정 기간을 함께하며 창작 과정과 성장을 지켜보는 후원 구조는 예술가에게 안정감을 주고, 기업에는 신뢰와 보람을 안겨준다. 특히 지역 교향악단, 공연장, 교육기관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협회가 맡는다면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보다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청년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멘토링, 레지던시, 무대 경험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문화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이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 안에서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메세나의 가치를 사회와 공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후원의 결과를 시민과 나누고, 예술이 지역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줄 때 메세나는 더 넓은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앞으로 경남메세나협회가 예술과 기업, 도민을 잇는 신뢰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Flutist

숨결을 담아,

음악으로 마음을 전하는

플루티스트
유채연

Chae-yeon You

한 아이가 있었다. 2013년 경남메세나대회에서 초등학교 6학년의 나이로 문화예술영재상을 수상했던 그 아이는, 어느덧 자라 독일 함부르크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에서 종신 수석 플루티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경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영재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음악가로 성장하기까지, 그의 곁에는 언제나 온전히 지지해 준 ‘사람들’과 ‘음악’이 있었다.

＊
노력과 연습으로 완성된
천재 플루티스트

누군가는 그를 ‘천재 플루티스트’라고 불렀다. 실제로 그는 초등학교 4학년에 처음 플루트를 접했고, 6학년 때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입문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지역은 물론 전국 콩쿠르에서도 1등을 놓치지 않았다.

부산예중을 자퇴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원에 입학했으며, 이듬해 서울예고에 들어가 다시 한예중 예술원에 입학하기까지, 겉으로 보기엔 모든 과정이 쉬워 보였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한예중 음악원 2학년이던 2019년, 그는 제71회 프라하의 봄 콩쿠르 플루트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관악기 부문 ‘순수 국내파’로는 최초의 메이저 국제 콩쿠르 우승이었고, 플루트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이룬 성과였다. 당시 그는 역대 최연소 우승자이기도 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독일 함부르크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에서도 그는 가장 어린 단원이다. 그 어린 나이에 종신 수석 플루티스트 자리를 꿰찼다는 사실은 그의 실력을 더욱 증명한다.

그러나 그의 연습 과정을 본 사람이라면 ‘천재’라는 말보다 ‘노력가’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말할 것이다. 어렸을 때 혼자 서울로 올라와 하숙집 생활을 할 때, 연습에 집중하기 위해 스마트폰까지 포기했을 정도였다. 그만큼 지금의 유채연을 만든 것은 타고난 재능보다 연습과 노력의 시간이 더 컸다.

“한번은 사흘 동안 거의 연습실에서 지내다시피 한 적이 있어요. 기술적인 연습뿐 아니라 마음의 방향 자체를 플루트로 완전히 맞춰 두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고, 그 과정이 제게 큰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의 지지, 좋은 스승, 무대에서 느끼는 감동이
제가 음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
경남메세나 장학생에서
경남 문화예술의 자랑으로

2013년 경남메세나대회 문화예술영재로 선정됐던 그
당찬 아이는 이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음악가가
되었다. 당시 그는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음악의 미래를 꿈꿨고,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던
중 김호준 지휘자의 추천으로 메세나 장학생이 되었다.
그 경험은 더 큰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어릴 때 우연히 플루트를 처음 접한 순간, 이 악기를 꼭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연주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관객들과 하나 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음악은
제 인생의 중심이 되었죠. 부모님의 지지, 좋은 스승,
무대에서 느끼는 감동이 제가 음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2018년 금호영아티스트로 데뷔했고, 이후 KT&G장학재단
메세나 음악 장학생, 현대차 정몽구재단 문화예술
장학생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가 세계적인 플루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많은 기업과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후원이 있었다. 실력과 노력, 그리고 든든한 지지
덕분에 우리는 경남에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음악가의
탄생을 보게 된 셈이다. 이것이 바로 메세나 활동이 필요한
이유이자, 가장 보람 있는 결실일 것이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손에 다
꼽기 힘들 만큼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플루트는 숨결로 소리를 만드는 악기

“플루트는 호흡을 사용해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인간의
숨결이 가장 직접적으로 닿는 악기이기 때문에, 바람처럼
자유로운 소리는 물론 목소리처럼 따뜻한 음색까지 모두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플루트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처음 음악을 접했을 때부터 플루트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말한다. 목소리와 닮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좋은 연주를 위해 호흡의 흐름, 음색의 색조,
리듬의 밀도 같은 작은 요소들까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습했다.

이런 연구와 연습을 통해 그는 늘 최선의 하루를 만들어낸다. 무대에
오르기 전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하지만 늘 대답은 같았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 수는 없었을 것’이란 대답이었다.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지금의 유채연
플루티스트를 만든 비결이었다.

＊
투명한 진심을 가진 연주자

“솔로 무대는 저의 세계를 온전히 드러내는 자리예요. 그만큼 자유와
책임이 함께 따라옵니다.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악기와 음색이
더해져 훨씬 큰 스케일의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감동이 있어 또 다른
매력이 있죠.”

그는 앞으로 오케스트라 활동을 기반으로 솔로 무대와 리사이틀,
다양한 국제 무대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나아가 유럽과
한국을 잇는 음악적 교류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도달하고 싶은 곳은 바로 ‘투명한 진심을 가진 연주자’다.
음 하나하나가 투명한 진심을 전하고, 그 음을 들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음악가로서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독일에서 더 큰 세상을 향해

그에게 경남은 늘 고향 같은 편안함이 있는 곳이다. 가끔 창원시
청소년관악단에서 활동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음악을 사랑하던
순수한 마음과 지금까지의 성장을 함께 되짚어 보기도 한다.

“그 시절의 고민과 연습이 없었다면 지금의 플루티스트 유채연은
없었을 거예요. 그 시작이 되준 경남의 풍부한 문화예술 환경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문화예술 토양에서 자라난 아이가 이제는 더 큰 세상을
향해 숨결을 불어넣고 있다. 그는 현재 함부르크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Philharmonisches Staatsorchester Hamburg)에서 종신
수석 플루티스트로 활동 중이며, 베를린 예술대학교(UdK Berlin)에서
Christina Fassbender 교수 아래 석사 및 솔리스트 과정을 수료하고
있다. 솔로 무대, 오케스트라, 협연, 실내악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하며 한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음악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창원시청소년관악단에서 연주하던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
독일 오케스트라에서 종신 수석 플루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배운 모든 순간, 그때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도 제 음악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의 언어와 예술의 감각이 만날 때

서로의 세계를 넓혀준 인연



(주)에스 × 갤러리 거제

처음부터 말이 통했던 건 아니었다.
한 사람은 숫자와 성과의 세계에 익숙했고,
다른 한 사람은 색과 감각, 울림의 언어로
세상을 바라봤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서로가 보고 있는 풍경은 달랐다.
그러나 그 다름이야말로 이 동행이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였다.
경남메세나협회를 통해 이어진 두 사람의
인연은 단순한 후원 관계를 넘어,
서로의 시야를 넓히고 삶의 환경을 넓혀 준
아름다운 동행의 시작이었다.



서로 다른 언어로 마주한 첫 만남

“처음 만났을 때는 솔직히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끼진 못했어요.
서로 보는 세계가 너무 달랐거든요.”

이제는 서로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 되었지만, 시작은 지금과
달랐다. 기업을 이끌며 늘 숫자와 결과를 고민해 온 사람과 예술적
언어로 세상을 풀어내는 사람. 둘은 그저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연을 시작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갤러리
거제 정홍연 대표는 당시 여성 문화예술경영인으로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경남지회’에 가입했고, (주)에스 김미연 대표는 이미
활동 중이었다. 이후 연세대학교 AMP 경영자 최고위 과정을
함께 공부하며, 경영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와
예술 이야기가 오갔다. 기업 경영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이때부터 조금씩 시작됐다. 그렇게 쌓인
시간은 어느새 서로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갤러리 거제 정홍연 대표 “과정을 수료한 후에 정기 모임을 가졌는데,
단순히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현대 미술의 탄생에서
가장 유명한 사과 3개가 무엇일까?’ 등 예술이 일상에 스며들어
기술 경영을 바꿔 나가는 모습, 디자인의 변혁 등에 대해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우리의 인연을 더 단단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옥션, 시선을 바꾼 결정적 장면

관계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순간은 뜻밖에도 ‘옥션’에서 찾아왔다.
2022년 여성기업주관을 맞아 정 대표는 미술품 경매 옥션을
추진했다. 옥션을 조금 더 재미있게, 비교적 적은 금액부터 시작해
경험해 보게 하고 싶었다.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찾기 어려운
경제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작품을 설명하고 경매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경험에 눈뜨게 한 것이다.

작가와 작품 설명을 귀담아 듣던 김미연 대표의 눈에도 작품
하나가 들어왔다. 마음에 드는 작품을 만나 입찰해 낙찰을 받은
첫 경험이었다. 작은 작품 하나였지만, 그 안에는 작가가 고민한
시간과 삶의 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격표 뒤에 가려져 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다.

(주)에스 김미연 대표 “그전까지는 그림을 소유의 개념으로만 생각했지,
작품을 산다는 감각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액자를
산 게 아니라 작품을 샀다’는 느낌을 받았습시다.”

이 경험을 통해 김 대표는 예술이 감상하거나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 주는 매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꼈다.
그렇게 김 대표가 살아오던 삶의 환경은 문화예술의 세계로까지 한
발 더 확장됐다.





후원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

두 사람의 인연은 경남메세나협회를 통해 본격적인 동행으로 이어졌다. (주)에스는 매칭 펀드를 통해 갤러리 거제를 후원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갤러리 거제는 ‘그림 속 숨은 이야기’, ‘그림이 돈이 된다고? 미니 옥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다. 작가와의 대화를 중심으로 지역민들에게 보다 가까운 예술 경험을 전하는 자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주)에스 김미연 대표 “예술가가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 후원과 전시회 개최 지원은 작가들에게 산소와 같은 것이라곤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성숙해지고, 예술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저도 시간을 내서 미술관에 갈 정도로 예술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오래전부터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범숙학교와 경남해바라기센터 후원을 비롯해 복지관 봉사, 급식 봉사, 정기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 왔다. 정 대표와 인연을 맺은 후에는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됐다. 물질적인 후원을 넘어 아이들의 상처 난 마음을 예술로 치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눔의 결도 달라졌다. 연극반을 만들어 공연을 올리고, 영화를 함께 보고, 갤러리를 찾아 작가와의 대화를 나누는 경험은 아이들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 냈다.

관계가 넓어질 때, 기회도 따라왔다

두 사람이 동행을 시작한 뒤 기분 좋은 일도 자연스럽게 찾아왔다. 흔히 ‘메세나를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하지만, 두 사람은 그것을 기적이나 미신으로 여기지 않는다. 돌아보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들은 모두 문화예술과 기업이 인연을 맺은 이후에 찾아왔다. 어려운 시기에 성사된 계약들, 전보다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된 순간들도 두 사람의 인연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결과였다.

갤러리 거제 정홍연 대표 “저희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람을 만나고, 관계가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기회도 따라온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예술을 통해 맺은 관계는 오래 남았고, 그 연결은 삶과 일의 여러 지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메세나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세계를 열어 주었고, 성과보다 사람을 먼저 바라보게 하는 시선을 선물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행

이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를 사는 존재가 아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걷는 동행자다. 기업은 예술에 지속 가능성을 더하고, 예술은 기업에 새로운 감각과 상상력을 건네고 있다.

앞으로 이들이 함께 그려 갈 그림은 더 넓다. 아이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의 확장, 지역 안에서 누구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작업을 이어 갈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고민까지. 메세나는 ‘지원’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인식 아래, 이들의 동행은 계속될 예정이다.

(주)에스 김미연 대표, 갤러리 거제 정홍연 대표 “경남 하동에 ‘예술로 태어나 예술로 돌아가는’ 이상향 예술복합단지란 만드는 것이 꿈이에요. (주)에스의 ESG 경영과 갤러리 거제 예술 유토피아의 융합으로 만들어 낼 새로운 미래를 기대해 주세요!”

서로의 세계를 존중하며 한 걸음씩 걸어온 시간. 그 동행이 만들어 낸 변화는 개인을 넘어 지역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 낸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두 사람이 함께 꾸는 꿈도 마침내 이뤄 주기를 기대한다.

한때 갤러리와 미술관의 차이조차 모르고 오로지 기업의 숫자에만 몰두해 있던 김미연 대표.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 잠시 쉬어 가라고 손짓하는 곳이 바로 갤러리 거제’라고 말한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라고 재촉하는 시대에 쉼을 선물하는 것이야말로 예술이 선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가치일 것이다. 갤러리 거제는 그 시간을 건네고 있고, (주)에스는 그것이 선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동행이 또 있을까.

예술가가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 후원과 전시회 개최 지원은 작가들에게 산소와 같은 것



감동에서 시작된 후원, 경남을 물들이다

경남오페라단 정영식 이사장

공연 한 편을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범한그룹 정영식 회장의 나눔과 문화예술 지원은 그렇게 시작됐다. 어린 시절의 어려운 기억은 기꺼이 나누는 어른으로 그를 성장시켰고, 무대 위에서 느꼈던 깊은 감동은 예술가를 응원하는 이유가 되었다. 감동에서 시작된 후원은 어느새 경남 전역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다.



기술력은 세계로, 나눔은 지역으로

청운의 꿈을 안고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1990년, 국산 기술로 세계를 넘어서고 싶다는 생각으로 범한산업을 창업했다. 쉽지가 않았던 35년 동안 범한은 공기압축기와 수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성장했고, 현재는 범한산업·범한퓨얼셀·범한메카텍 등 일곱 개 자회사를 거느린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커진 것은 외형만이 아니었다. 정영식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누구보다 성실히 실천해 왔다. 지역사회 나눔은 물론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까지 지원의 폭을 꾸준히 넓혀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업의 역할은 수익 창출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기쁨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사람, 가장 중요한 자산

정영식 회장은 늘 사람이 기업을 이끈다고 말한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자본이 있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면 기업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관심이 언제나 인재와 현장에 머무는 이유다. 지역 인재 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남기는 경영을 실천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후원회장 활동을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베트남 학교 후원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미래를 향한 관심 역시 변함이 없다. 사람을 향한 그의 진심은, 결국 예술로 이어졌다. 예술 또한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감동을 아는 사람, 예술을 후원하다

그는 감동을 아는 사람이다. 러시아에서 관람한 발레 <마술피리> 공연이 끝난 뒤, 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던 관객들의 모습을 보며 문화예술이 지닌 힘을 실감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에는 문화예술 후원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2007년부터 경남오페라단 후원이사로 활동하며 지원을 이어왔고, 2009년 경남관악단 창단과 함께 지속적인 후원으로 예술가들의 활동을 응원해 왔다. 2013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경남메세나협회 매칭펀드를 통해 매년 2~4팀의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을 돕고 있다.



그 결실은 무대 위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2025년 8월, 범한의 오랜 후원을 받아온 ‘극단 상상창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연예술축제인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해 해외 무대에 우리 작품을 선보였다. 지역에서 시작된 후원이 세계 무대로 확장된 순간이었다.

그의 관심은 예술에 머물지 않고 스포츠로도 이어진다. 2016년부터 ‘범한배 중학야구대회’를 개최하며 야구도시 창원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이 대회는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성장하고, 지역이 함께 응원하며 꿈을 키워가는 장이다. 그 역시 사람을 키우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 믿는다.

경남오페라단 이사장, 책임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경남오페라단 후원이사로 활동해 온 그는 2025년부터 이사장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았다.

“오랫동안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후원이사로 활동해 온 경남오페라단의 이사장직을 맡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민간 오페라단이 35년 동안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애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분들의 마음을 되새기며, 앞으로 지역민들과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사장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은 20년 전 초연했던 경남오페라단의 창작 오페라 <논개>를 다시 무대에 올리는 일이었다. 2005년 10월 초연된 이 작품은 2025년 10월, 창원 성산아트홀과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다시 관객을 만났다.



20년 만에 다시 오른 무대는 깊은 울림을 남겼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박수는 오래 이어졌고, 무대 위 배우들은 우리 말로 우리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음에 벅찬 감동을 느꼈다. 오래전 발레 공연에서 감동을 받았던 정영식 회장의 마음에도, 그날의 감동보다 더 큰 울림이 밀려왔다. 지금까지 이어온 문화예술 후원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창작오페라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말로 된 우리 지역의 이야기라서인지 반응이 정말 좋았고, 지역 창작오페라의 가능성을 확인한 무대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등불로 가득 찬 무대 위로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질 때는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후원

그는 이름만 올리는 이사장이 아니다. 연습 현장에도, 공연 당일에도 가장 먼저 객석을 찾는다. 그의 후원에는 관객으로서의 응원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알고 있다. 자신들의 무대를 진심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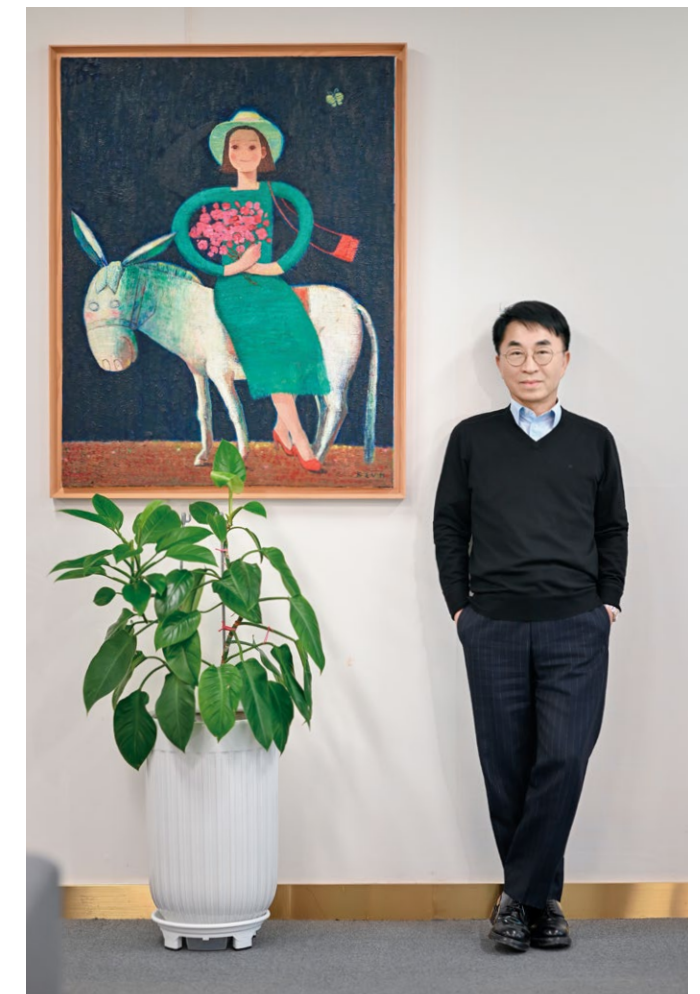
“저뿐만 아니라 경남오페라단은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로 많은 분들의 후원과 관심 속에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BNK경남의 지속적인 후원과 협력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후원자와 지역민의 사랑으로 성장해 온 만큼, 오페라의 정통성을 지켜가면서도 다양한 공연을 통해 관객과 가까이 호흡하는 예술단체가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해외 교류를 통해 경남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와 소통하는 단체로 도약하겠습니다.”

한 사람만큼 넓어진 길

한때 척박했던 경남의 메세나 환경은 이제 그를 비롯한 수많은 후원기업 덕분에 전국에서도 주목받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가 걸어간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문화예술 후원의 길도 그 보폭만큼 넓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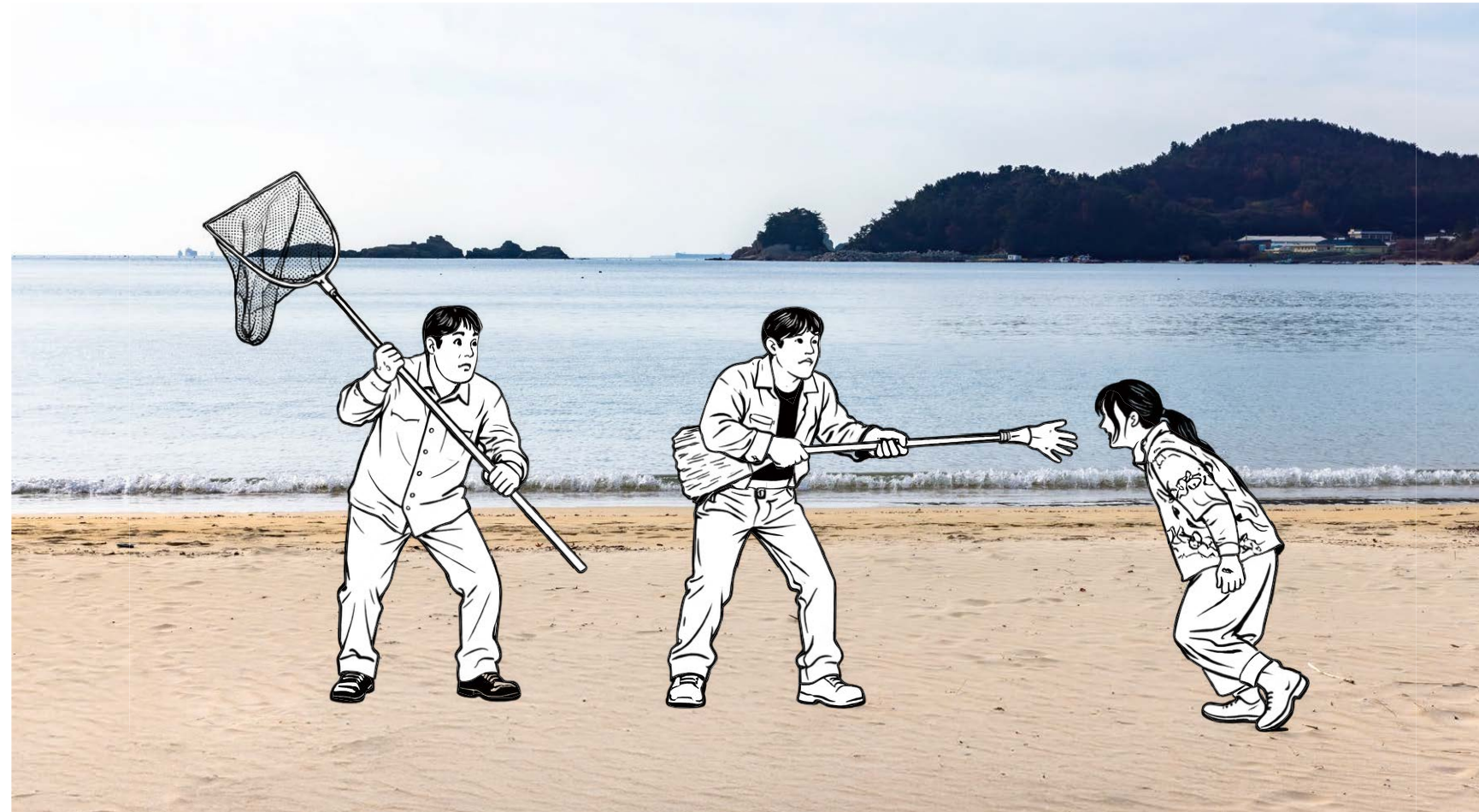
“메세나는 기업과 예술가, 그리고 관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어느 한쪽도 빠질 수 없어요. 기업가는 누군가를 돕는다는 마음보다, 맡은 바 책임과 의무로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부로 대접받기보다는, 동참함으로써 느끼는 보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한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소년은 이제 예술가의 꿈을 응원하는 어른이 되었다. 누군가의 꿈을 지켜주고,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며, 더 많은 이들이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일. 속도보다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한 그의 발걸음에는 오늘도 따뜻한 나눔과 배려가 묻어난다. 그리고 그 길 위로, 또 다른 발걸음들이 하나둘 더해지고 있다.



영화 좀비딸 속 풍경, 경남에 있다!

영화를 즐기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탄탄한 서사에 몰입하기도 하고, 배우의 열연이나 감독의 섬세한 미장센에 감탄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백미는 스크린 속 풍경이 현실이 되는 순간, 즉 '촬영지'를 직접 마주하는 경험이다. 2025년 여름, 563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웹툰 실사화의 새 지평을 연 영화 <좀비딸>의 배경에는 경남 남해의 푸르른 풍광이 자리하고 있다. 영화 속 감동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보물섬 남해로 무비 투어를 떠나보자.



여러분, 남해가 너무 예뻐요~

<좀비딸>의 핵심 공간인 밤순의 집은 제작사가 남해군 창선면에 직접 오픈세트장을 지었다. 비록 지금은 세트장이 철거되어 아쉬움을 남기지만, 그 자리가 있던 '신흥해바리마을' 곳곳에는 영화 속 벽화들이 남아 있다.

남해 바다의 푸르름은 쪽빛을 닮았다. 시원하게 펼쳐진 해변과 더불어 늪틈한 산세가 어우러져 어디서나 산과 바다의 조화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밤순의 집이 있던 마을 역시 뒤편으로는 수령 60년 전후의 편백나무숲이, 앞으로는 눈부신 바다가 활짝 펼쳐져 있다. 비록 영화 속 집은 이제 만날 순 없지만 마을의 모습은 여전히 영화 같은 감동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남해의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남해청소년수련원, 상동면 임춘당약국, 상주중학교 등이 스크린에 담겼다. 수아가 다니던 학교로 등장하는 상주중학교와 정환의 친구 동배의 일터였던 상동면 임춘당약국 역시 영화의 여운을 따라 걷기 좋은 장소들이다.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고 친근한 이 장소들은, 그 길을 걷는 우리를 어느새 영화의 한 장면 속으로 이끌어간다.

주요 촬영지는 남해군

나의 딸은 좀비다. 이 세상 마지막 남은 유일한 좀비. 영화 <좀비딸>은 동명의 인기 웹툰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다. 세상에 마지막 남은 좀비가 된 딸을 지키기 위해 아빠 정환은 어머니 밤순이 사는 바닷가 마을 은봉리로 딸 수아와 향한다. 딸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정환은 그곳에서 좀비 딸 트레이닝에 돌입한다.

영화화 소식과 함께 캐스팅이 공개되었을 때, 원작 팬들은 '웹툰을 찢고 나왔다'며 열광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성공 비결에는 완벽한 싱크로율의 배우들뿐만 아니라, 필감성 감독이 전국을 누비며 찾아낸 촬영 장소의 힘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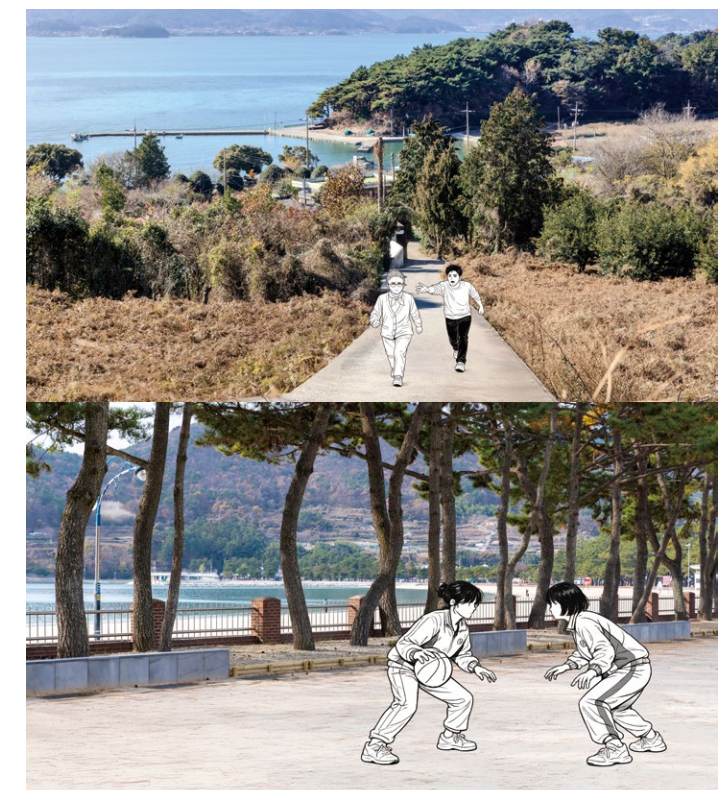
영화의 주 무대인 밤순의 집은 원작에서는 강원도의 가상 산골 마을로 설정되어 있지만, 감독은 마당 너머로 멀리 바다가 보이는 집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영화팀은 장소 물색을 위해 전국을 누빈 끝에 경남 남해군 창선면에서 한 마을을 운명처럼 만났다. 놀라운 사실은 원작자

이운창 작가의 고향이 바로 남해라 웹툰의 주 배경 역시 남해를 모티브로 그려졌다는 것이다.

경남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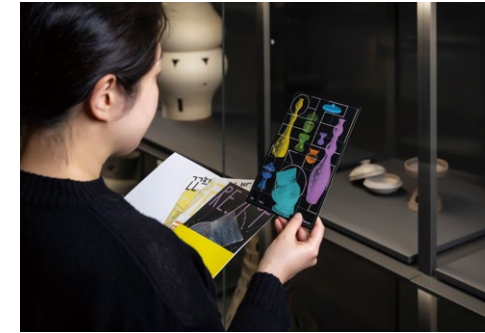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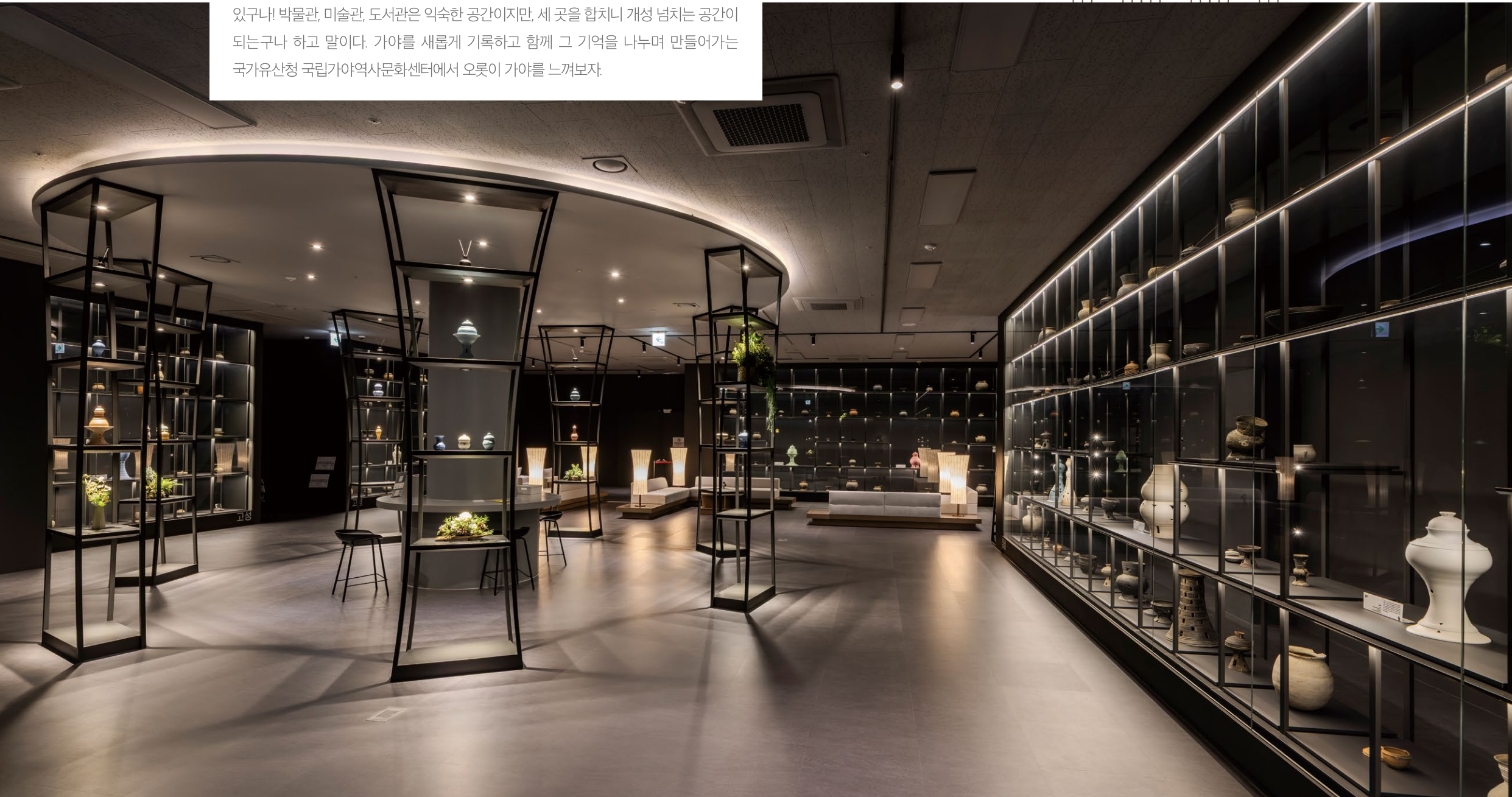
개봉 이틀 만에 누적 관객 70만 명을 돌파한 <좀비딸>은 최종 관객 수 563만 명을 기록하며 2025년 최고의 흥행작으로 등극했다. 이런 눈부신 성과 뒤에는 '경남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도움이 있었다. 경상남도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도내 우수 영상물(영화·드라마) 유치를 통해 제작비를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지역 홍보와 관광객 유치까지 다각적인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2024년 '경남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좀비딸>은 총 63회차 촬영 중 34회차를 경남에서 찍었다. 주요 촬영지인 남해 외에도 통영시 도산면, 산청군 황매산, 고성군 성심병원,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등 경남의 다채로운 풍경이 스크린에 담겼다.



자연스럽게 가야가 스미는 곳, 국가유산청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국가유산청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에 가면 첫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된다. 겉으로 보서는 평범한 건물, 1층까지도 크게 특별할 것이 없다. 하지만 2층, 메인인 <RE.가야> 공간에 들어서면 깜짝 놀라고 만다. '가야'를 이렇게 참신하게 풀어낼 수 있구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은 익숙한 공간이지만, 세 곳을 합치니 개성 넘치는 공간이 되는구나 하고 말이다. 가야를 새롭게 기록하고 함께 그 기억을 나누며 만들어가는 국가유산청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에서 오롯이 가야를 느껴보자.



가야의 역사를 기억으로 다시 새기다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과 공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야는 대중의 관심에서 크게 빛을 발하지 못했다. 지난 2023년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비로소 가야만을 조명한 전시나 발굴조사, 관련 기사 등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가야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조금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진다.

이런 가야를 가깝고도 쉽고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다. 2024년 9월 개관한 이곳은 광역적으로 분포한 가야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기록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 허브이자, 모든 가야 문화유산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연구소 내부에 머물러 있던 발굴 자료와 비귀속유산, 기증 도서 등을 전시의 형태로 재구성해 '아카이브'라는 개념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라키비움(Larchiveum, Library+Archive+Museum)' 개념을 도입해 도서관, 아카이브, 뮤지엄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한다.

1층에 있는 <세계유산 가야말의 숨결, 쇠의 울림, 고분의 기억> 전시는 오랜 시간의 연구를 거쳐 복원한 가야 중장기병의 말 갑옷과 가야 고분군 7곳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심도 있게 담아냈다. 특히 가야고분군의 발굴부터 정비, 세계유산등재까지 여러 과정에서 함께했던 전문가들의 인터뷰 영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가야를 생생하게 알아볼 수 있다. 가야를 깨운 사람들의 당시 이야기를 듣고 7개의 고분군에서 확인된 구조나 주요 부장품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때의 현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歴史

文化



학자가 수집한 실크로드 관련 만화책, 잡지, 고서 등 쉽게 접하기 힘든 자료들도 모두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신간 도서도 정기적으로 새롭게 구비해 여러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가야사 아카데미’를 통해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가야 문화의 가치를 조명하는 아홉 차례의 강좌를 열었다. 또한 어린이 대상 체험 프로그램 ‘어린이 고고학자’로, 미래세대가 발굴과 연구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앞으로 북콘서트, 전시 연계 활동지, 교육 프로그램, 공연, 국민 참여 공모전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당신은 ‘가야’를 어떻게 기억하나요?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RE:가야>의 물음에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다. 이곳에 다녀오면 하나는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가야는 우리에게 낯설지도 멀게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만난 가야를 다시, 기억하고 싶어진다고 말이다.

가야를 기억하는 방법

2층에 가면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의 역할이 빛을 발한다. 2025년 9월 개막한 <RE:가야>는 ‘우리가 가야를 기억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가야의 기록을 꺼내어 현대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새로운 가야의 기억을 써 내려갈 수 있다. ‘가야를 배우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지향점으로 삼아 시각·청각·촉각·후각을 아우르는 다감각적 전시를 구현했다.

<RE:가야>에는 ‘다시(RE)’의 의미와 함께, 현대의 우리가 가야에게 보내는 회신(RE:PLAY)이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 열린 수장고, 고고학자의

방, 책방 총 세 곳으로 구성된 <RE:가야>는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가 수행하는 아카이빙의 전 과정을 전시로 시각화했다.

열린 수장고는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에서 30여 년간 격납되어 있던 가야 토기 294점을 최초로 공개한다. 실제 가야 토기와 더불어 도예작가 진윤희가 재해석한 작품도 병치 전시해 관람객이 박물관 속에서 미술관의 감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 배치 또한 기존의 정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일부 진열장은 유리장을 제거해 작품을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김해 공방마을을 조형사와 협업해 ‘물·불·흙·바람’을 모티브로 한 열린 수장고의 시그니처 향 ‘환원(還元): 되돌려 다시 보다’를 제작했다.

고고학자의 방은 1990년대 함안 말이산고분을 발굴조사하던 (구)창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의 연구실을 모티브로 조성했다. 실제 사용된 조사 장비, 실측 도구, 야장, 도면, 유물 스케치와 사진 등 다양한 기록물을 활용해 이름 그대로 고고학자의 방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한쪽 벽면의 ‘고고학 보드’에는 고고학자의 고민이 담긴 메모가, 서랍에는 실제 발굴조사 때 쓰인 문서들이 담겨 있다. 켜켜이 쌓인 다양한 자료를 보다 보면 가야를 캐는 탐정이 된 듯하다.

다시, 가야

책방에서는 가야사 학자들이 기증한 도서부터 국가유산청이 펴낸 발간물, 신간 도서, 실크로드 관련 서적까지 방대한 자료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특히 국가유산청 소속 기관에서 펴내는 잡지들을 모두 볼 수 있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일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 45

운영시간 평일 9:30 ~ 17:30 (입장마감 17:00)

휴관일 주말 및 공휴일

문의 055-312-9002



INSTAGRAM



공감과 창조로 예술의 미래를 여는 공간

PAC 갤러리

PEOPLE 사람



ART 예술



CULTURE 문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예술이 생기고, 그 예술을 바탕으로 문화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PAC 갤러리는 그것들을 연결하는 작은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사람(People), 예술(Art), 그리고 문화(Culture)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PAC 갤러리, 예술적 허브로의 첫걸음

노창세 관장은 치과의사이자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예술적 감각을 키워왔다. 지난 2008년에는 치과에 마련한 소규모 대안 공간에서 전시를 펼치기도 했다. 그때 대안 공간에 전시를 하고자 찾아오는 작가들을 보며, 지역에 예술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때부터 그는 시각예술 중심의 갤러리 설립을 꿈꾸게 된다.

이후 부산까지 오가며 예술과 인문학 공부를 이어온 그는 10여 년간의 준비 끝에 갤러리를 완성했다. 진주시 신안동에 가면 시각예술 중심 문화 공간 'PAC 갤러리'를 만날 수 있다. 노 관장이 어려서부터 뛰어놀던 터에 지어 올린 3층 건물로, 오래 품어 온 예술의 꿈이 비로소 실현된 공간이다. 공간 하나하나, 작품을 걸 위치와 빛의 각도, 관람객의 시선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PAC 갤러리는 2025년 10월 19일, 사진진주 2025 주제전 <일상, 반복을 넘어선 사유의 대상>을 개최하며 정식으로 개관했다. 작품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고 감동과 공감을 나누는 '예술적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예술과 공감이 만나는 공간

PAC 갤러리는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장과 더불어 예술가와 관람객이 생각과 감성을 교류하는 창의적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1층 카페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아트숍의 기능을 겸한다. 전시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커피 한 잔을 즐기다 우연히 작품과 마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여유로운 음악과 향긋한 커피, 그리고 작품 사이에서 사람들은 예술과 자연스럽게 교감할 수 있다.

2층 갤러리는 시각예술 중심의 전시 공간으로, 예술을 통한 소통과 이해의 장을 제공한다. 동시대 시각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며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전시를 펼치는 것이 목표다.

3층 사무실과 세미나룸은 전시를 넘어 작가와의 대화, 강연, 인문학 프로그램, 워크숍까지 다양한 활동을 품는 공간이다. 예술은 작품을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나누어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믿는 노 관장의 철학이 담겨 있다.

기획전을 통해 융합 문화예술의 미래를 열다

PAC 갤러리는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현대미술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예술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 다른 시각 문화를 이해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꿈꾸고 있다.

지난해 두 번째 기획전으로 마련된 송광연 작가의 팝아트 전시 <나비의 꿈>은 한국 전통 민화 모란도의 도안을 바탕으로 나비 자수를 채워 넣어 미래와 희망의 이미지를 섬세하게 표현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2026년에는 현실과 내면을 섬세한 추상으로 풀어내고 이를 현대 문명의 멀티미디어 기법과 접목한 박대조 작가의 작품을 시작으로, 연간 6회 이상의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들에게는 작품을 선보일 공간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는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전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작가 발굴에도 꾸준히 힘쓰며, 융합 문화예술의 미래를 열어갈 예정이다.

지역예술의 가능성을 넓히다

노창세 관장 “제가 배우고 익힌 것들이 제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고, PAC 갤러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도 예술로 풍요롭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PAC 갤러리는 지역 예술의 가능성을 넓히고 현대 예술의 미래를 여는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마쳤다. 여유로운 커피 한 잔, 작품 한 점, 그리고 사람 사이의 공감.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곳이 바로 PAC 갤러리다. 노 관장의 바람처럼, 이곳이 사람과 예술,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PAC 갤러리 10:00~19:00 (매주 월요일 휴관)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409-3 (신안동 8-16)

T 055-743-7772 F 055-743-7775



來者尚可追 앞날은 그래도 어찌할 수 있으니
自此須更始 이제부터 모쪼록 다시 시작하리

장유(張維, 1587-1638)

『계곡선생집(谿谷先生集)』 25권 「갑인년 선달 그믐날 밤의 감회[甲寅除夕有感]」

우포의 아침 photo by. 김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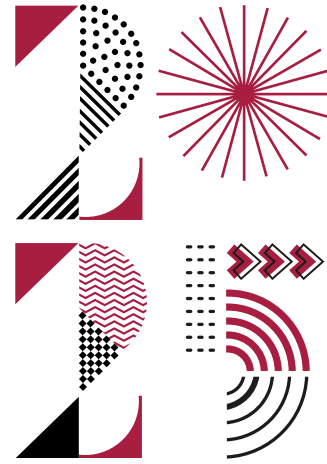


김관수 KIM GOUANSU

- IPA갤러리 대표
- 경남사진학술연구원 원장
- 경남국제사진페스티벌 운영위원장
- 경남예술인협회 회장
- 동서미술상 운영위원

2025 경남메세나대회

메세나로 경남을 빛낸 별들의 축제



2025경남메세나대회가 지난 11월 27일(목) 창원 리베라컨벤션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한 해 동안 메세나 정신을 실천하며 예술 후원 활동에 참여한 경남의 메세나인들이 모두 모였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든든히 예술 지원에 매진해 온 기업과 개인 그리고 창의적 예술 활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준 예술단체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응원이 쏟아졌다.

Gyeongnam Mecenat Awards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는 경남메세나협회는 작년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을 통해 3년 연속 200개 팀 이상이 결연을 맺는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메세나활동이 큰역할을 하였기에 2025 경남메세나 대회의 이미지는 더욱 깊었다.

이번 경남메세나대상 시상식은 기업인과 예술단체 대표 그리고 유관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기념하고, 지속가능한 경남문화예술 생태계를 위해 소통했다. 김태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누적 지원금 420억 원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술을 아끼고 후원한 기업과 열정적으로 활동한 예술인 덕분이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예술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문화경남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메세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예술가들의 열정이 하나로 어우러져 지역경제와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생태계를 만들어 왔다”며 기업과 예술의 동행을 경남의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문화예술 지원으로 사회 공헌을 실천한 4개 기업과 1개 예술단체, 1명의 개인 그리고 1명의 문화예술유망주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무대에 오른 문화예술유망주의 공연 그리고 경남국악예술단 가인의 축하공연으로 행사는 그 어느 해보다 다채롭고 풍성하게 치러졌다.



대 상

(주)화인테크놀로지

서영옥 대표이사

(주)화인테크놀로지는 지난 1998년 창립 이래 접착테이프, 플라스틱 필름, 시트 제조 부문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2018년 벤처기업 최초로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했고,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생활균형 우수, 고용안전 우수, 임금 우수 등 여러 부문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

경남 메세나의 든든한 뿌리

서영옥 대표이사는 학창 시절부터 문화예술의 긍정적 힘을 체감하며, 기업인이자 직접 색소폰을 연주하는 음악가로서 예술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2007년 경남메세나협회 창립 때부터 회원사로 참여해왔으며, 2017년부터는 부회장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경남여성경영인협회 회장 재임 시에는 메세나 확산을 위해 협회 예산에 문화예술활동 항목을 별도로 편성해 운영하였다. 평소 좋은 책을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사내에 조각 작품을 전시하며, 신진 음악가의 음반 제작을 지원하는 등 예술가들이 시민들의 삶에 휴식과 위로를 선물하는 존재라는 믿음으로, 그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음악가의 무대를 지탱하는 후원자

2020년부터는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에 참여해 실내악단 '코리안 드림신포니에타'를 매년 후원하고 있다. 이 지원 덕분에 단체는 안정적으로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며 예술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단체는 감사의 마음으로 회사 내 음악회를 여는 등 따뜻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예술과 일터가 만나는 공간

2009년 메세나인상을 계기로 공장 내에 공연장 '프론티아트홀'과 전시공간 '인송(仁松)갤러리'를 설립했다. 이곳에서는 정기 공연과 전시가 열려 직원과 지역민이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는 예술의 일상화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화인테크놀로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명문기업 15호'로, 서 대표 역시 아너소사이터티 회원으로 부경대와 창원대에 발전기금을 기부하고, 경남FC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한 지원도 이어오며 지역사회와 예술을 향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부모의 사랑처럼 따뜻한 화인테크놀로지의 후원은 지역 예술단체가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강동명 대표이사는 1995년 자동차 부품회사인 (주)남광디씨텍을 창업하고 고객 만족주의 경영을 실천하면서 경남 대표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 기업을 일구는 동시에 어린 시절 꿈이었던 복합문화공간 '에스키스 타운'을 조성해 지역민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소년의 꿈은 모두의 꿈이 되다

가난했던 시절, 강동명 대표이사는 언젠가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짓겠다는 꿈을 품었다. 그 꿈은 마침내 김해의 '에스키스 타운'으로 현실이 되었다. 에스키스(Esquisse)는 '밑그림(스케치)'을 뜻하는 말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을 품은 공간이다. 첫 번째 공간인 레스토랑 '에스키스'는 디자인과 설계, 시공까지 강동명 대표이사가 직접 참여할 만큼 정성과 열정이 담겨 있다.

바쁜 일상 속 심표, 에스키스 타운

2023년 여름, 두 번째 공간인 복합문화시설 '언엔드(unend)'가 문을 열어 에스키스 타운이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카페·갤러리·공연장이 어우러진 이곳에서는 영화, 재즈콘서트, 클래식 연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강동명 대표이사는 "무대를 열어주면 주인은 지역 예술인"이라며 예술가에게는 무대를, 시민에게는 힐링을 선물하고 있다. 아직 완성 전이지만, 언엔드는 이미 지역민에게 '문화예술의 심표'로 자리 잡았다.

미래의 예술가를 응원하다

강동명 대표이사는 공간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후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청년과 학생들이 지역에 머물며 예술을 즐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2023년부터 경남교원유스오케스트라를 매칭펀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의 후원 덕분에 학생들은 해외 교류 무대에 설 수 있었고, 가야오페라단 후원회 집행이사로도 활동하며 지역 오페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소년 시절의 작은 꿈은 이제 많은 사람의 꿈을 키우는 큰 나무로 자라나, 지역 예술 생태계의 따뜻한 순환을 만들어가고 있다.

메세나인상

강동명 대표이사

(주)남광디씨텍



문화경영상

(주)그린자원

김상호 대표이사



문화공헌상

정인건설(주)

박태훈 대표이사



예술단체가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다

(주)그린자원은 지난 2022년부터 매칭펀드를 통해 김해를 대표하는 예술단체인 극단 이루마를 후원하고 있다. 극단 이루마(대표 이정유)는 2004년 창단한 김해 유일의 극단으로 가극극 시리즈, 김해 역사 인물 찾기 시리즈 등 다채로운 라인업으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극단 이루마의 이 같은 활약 뒤에는 (주)그린자원의 든든한 후원이 있었다. 덕분에 3편이 넘는 창작극을 기획하였는데, 그중에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연극 <가시고기>와 사회적 현실을 담아내면서 깊은 여운을 남긴 <흑백다방>은 극단 이루마를 대표하는 작품이 되었다. 무엇보다 기업의 후원 덕분에 코로나19 이후 침체했던 지역 공연 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무대를 통해 지역민이 교류하고 공감하는 시간

기업의 후원과 예술단체의 노력 덕분에 시민들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었고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좋은 작품을 김해 곳곳의 무대에서 만날 수 있었다. 또 지역 청소년 및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문화 복지 실현에 앞장섰으며, 좋은 공연을 함께 보면서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이런 활동 덕분에 (주)그린자원은 지역민과 정서적 교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나아가 ‘환경을 넘어 문화까지 책임지는 기업’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다.

고향 함안을 터전으로 세계를 향해

정인건설(주) 박태훈 대표이사는 스물아홉에 건설업을 시작해 2001년 정인건설(주)을 설립한 이후 20여 년간 한 길을 걸어다. 본사를 고향 함안에 두고 한 번도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은 것은 ‘고향을 기반으로 성장하겠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그 결실로 ‘남극세종과 학기지 증축공사’와 ‘인천국제공항 3단계 주 활주로 증설 사업’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정인건설(주)은 이윤 추구를 넘어 지역사회 공헌을 중요한 기업 가치로 삼고, 사회공헌팀 ‘정인건설愛’를 운영하며 지역민의 신뢰를 쌓고 있다.

아라가야 함안의 문화예술 미래를 응원하다

지역을 사랑하는 기업답게 정인건설(주)은 함안 대표 청소년 예술단체인 ‘아라가야 함안 청소년오케스트라’에 후원하고 있다. 아이들이 더 좋은 음악 교육과 무대 경험을 통해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된 이 후원은 올해로 4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말이산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원 음악회’, ‘환경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이 지역 곳곳에서 펼쳐졌다. 음악을 통해 아이들은 예술적 역량과 인성을 함께 키우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다. 아라가야 함안청소년오케스트라가 세상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엔 희망의 날개가 있다’라는 것이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던 희망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게 도와주었던 건 지역을 사랑하고 문화예술을 사랑한 정인건설의 아낌없는 나눔 덕분이었다.

다시 빛을 찾은 창원오페라단

창원오페라단은 2003년 창단 이후 <라 트라비아타>, <춘향전>, <마술피리>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지역 오페라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잠시 활동이 중단되었고, 2021년 10여 년의 공백기를 깨고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대형 오페라단 중심의 무대와 외부 가수 중심 공연을 지켜보면서, 지역 오페라가 설 자리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지역의 예술은 지역의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신념 아래, 오페라의 불을 다시 밝히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주)거명인텍, 재도약의 든든한 디딤돌

창원오페라단이 10여 년의 공백을 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거명인텍의 꾸준한 지원이 있었다. 손경목 대표이사는 2022년부터 경남메세나 매칭펀드를 통해 단체를 후원하며, 공연 제작과 단원들의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그 결과 <라 보엠>, <세빌리아 이발사> 등 다수의 수준 높은 오페라 작품들을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창원오페라단은 앞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획 공연으로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창원오페라단의 이런 여정에는 (주)거명인텍과 늘 함께할 것이다.

음악 영재 안예진, 진지함과 성실함으로 빛나다

트롬본과 함께 음악적 꿈을 키워온 안예진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오케스트라 입단 이후, 5학년부턴 트롬본 연주자로 진로를 정하고 체계적인 연습과 수업으로 실력을 쌓아왔다. 선화예술중학교 재학 중에도 3년 연속 실기 우수상을 수상하며 꾸준한 성장과 성취를 보여주었고, 창원예술제,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음악춘추 등 국내 유수 콩쿠르에서 1위와 전체대상을 차지하며 ‘1위’의 이름표를 달았다. 2022년 창원시립교향악단 협연, 2023년 금호영재 독주회, 현대차정몽구재단 문화예술인재 장학생 선발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며, 현재 18세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에 조기 입학해 음악에 대한 열정을 이어가고 있다.

안예진 학생은 혼자 서는 무대보다 오케스트라와 합주를 통해 함께 만드는 무대를 즐기며, 다양한 경험 속에서 음악적 깊이를 넓혀가고 있다. 그녀가 만들어 갈 따뜻한 무대를 경남메세나협회가 뜨겁게 응원한다.

Gyeongnam
Mecenat Awards

Arts& Business상

(주)거명인텍 손경목 대표이사
창원오페라단 류신열 대표



문화예술 유망주상

안예진

서울대학교 1학년(트롬본)



Mecenat News

LH 아트프렌즈 지원사업

글·사진 메세나



경남 문화예술의 든든한 파트너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경남메세나협회와 손을 잡고 7년째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창의적 역량을 공유하고 예술적 우정을 나눌 열두 단체의 '아트프렌즈'들이 선정되었다. <LH 아트프렌즈 지원사업>은 지역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선정된 아트프렌즈들은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도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선순환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LH 아트프렌즈로 선정된 예술단체들은 경남의 문화예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찾아가 예술로 인사를 전했다. 정수예술촌은 마을회관을 찾아 어르신들의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작품의 완성

과 전시를 도와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청년으로 구성된 미술단체 두들은 고성군에서 청년 주도하에 첫 기획전시와 체험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군 단위에서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창원예술극단은 시니어 연극클럽이라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진입장벽이 높은 예술활동을 갈망하던 시니어들에게 도전하는 용기와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주었고, 아젤리아콰이어와 남쪽바다합창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합동공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었다. 진주관악단은 진주시 아동 정책의 일환인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캠퍼장을 찾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애니메이션 및 영화 OST 음악으로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으며 평소 접하지 못했던 악기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의미를 더했다. 또한 경남국악예술단 가인, 청년아트랩 : 진주, 진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지역 복지관, 재활원 및 요양원에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따뜻한 온기와 정을 나누며 연말을 마무리하였다.

이와 같은 다채로운 활동들은 LH 아트프렌즈 사업이 단순한 예술 지원을 넘어 사회 통합과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Mecenat News

KOEN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글·사진 메세나



경남메세나협회는 한국남동발전(주)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표로 추진한 'KOEN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본 사업은 기업과 예술이 협력하는 문화공헌 모델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문화 가치를 환원하고자 올해 새롭게 기획된 신규 사업으로, 소규모 예술행사의 가능성과 의미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남실버색소폰하모니는 '섬마을에 울리는 희망의 하모니'를 통해 문화 접근성이 낮은 섬 지역을 찾아 따뜻한 음악을 선사했으며, 거제연예예술인협회는 '동고동락 힐링 음악회'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형 문화행사를 기획·운영했다. 예술로발전은 '손끝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색'을 통해 미술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참여자들이

예술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마련했고, 나나밴드프로젝트는 'Tango, today'를 통해 대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무대로 관객과 깊이 있는 교감을 이끌어냈다. 또한 모글윈드오케스트라는 '클래식 나눔투어 with 한국남동발전(주)'을 통해 클래식 음악을 일상 공간으로 확장시키며 기업과 예술의 동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고, 진해예총은 '한국남동발전과 함께하는 장수사진 나눔축제'를 통해 문화예술과 사회공헌을 결합한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했다. 비라스는 '비라스의 꽃피는 나팔여행'으로 금관악기의 매력을 친근하게 전달했으며, 대한가수협회 창원시지부는 '새천년 경남가요제'를 통해 지역 가요 문화의 저변 확대와 시민 참여형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이처럼 각 단체는 저마다의 개성과 전문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곳곳에서 예술의 가치를 전했으며, 대규모 공연 중심이 아닌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행사로 도민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문화 소외 지역과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기획은 본 사업이 지향하는 '작지만 깊이 있는 문화 확산'이라는 목표를 충실히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술단체와 예술인에게 이번 사업은 창작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기업과의 협업 경험을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남동발전(주)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이러한 협력을 통해 예술과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예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업과 예술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헌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KOEN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은 그 출발점으로서, 경남 곳곳에 예술의 온기를 전하며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Mecenat News

경남메세나협회 회원사 문화서비스

글·사진 메세나

새해 출발을 문화예술을 통해 밝은 미소로 시작하며, 기업의 이익을 지역민에게 환원하고 임직원의 그동안에 노고를 문화예술로 치유하며 마무리한다. 경남메세나협회의 회원사 문화서비스인 '찾아가는 공연'과 '문화 송년회'를 활용하는 회원사들의 이야기다.



새해부터 미소 짓게 하는 귀염둥이들 세아창원특수강 × 경남뮤지컬단

창립 59주년을 맞이한 세아창원특수강에 창립기념식을 맞이해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그동안 회사를 이끌어온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한 손주들의 방문이었다. 친손주는 아니지만 귀여운 경남뮤지컬단 소속 경남리틀싱어즈 아이들의 방문은 일에 매달리며 쌓인 피로를 풀어드리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리허설을 마치고 시끌벅적 대기실로 향하는 귀여운 아이들에게 공연 전부터 꿀 떨어지는 시선이 쏠리고 있었다. 공연 시작과 함께 강당은 미소가 가득 번졌고 아이들은 미소에 화답하듯 수준 높은 공연으로 59주년 창립기념식을 축하했다.



상생의 현장에 문화예술을 더하다 현대위아(주) × 월드뮤직밴드 제나

현대위아(주)만의 특별한 행사인 이음마켓 시리즈! 현대위아(주)에서 주최하는 마켓은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써 지역 농가 상인들을 사내로 초청하여 장터를 열고 판매까지 책임지고 있는 지역 상생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행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악! 경남메세나협회는 현대위아(주)와 협업하여, 월드뮤직밴드 제나와 사내밴드 팀의 공연을 진행하여 행사의 품격을 높였으며 문화예술을 통한 또 다른 상생의 시작을 알렸다.



종무식을 음악으로 함께하는 문화예술 기업 신화철강(주) × 하이파이브 밴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종무식에 음주 가무에서 음주는 땀!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하며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회사가 있다고 한다. 바로 창원에 자리하고 있는 철강 1번 기업 신화철강(주)의 얘기다.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연례행사 같은 종무식이지만 신화철강(주)은 매년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하이파이브 밴드를 초청했다. 공연을 통해 사원들은 그동안에 노고를 음악으로 치유 받는 시간을 가졌고 신화철강(주)은 기업문화의 문화예술을 접목하여 창원을 선도하는 문화예술 기업으로 거듭 성장하고 있다.

 회원사 문화서비스 문의 ☎ 055-285-5613

경남메세나협회는 회원사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업의 문화경영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합니다.

Mecenat News

경남메세나협회 & 고성문화관광재단 업무협약 체결

글·사진 메세나



고성문화관광재단과 경남메세나협회는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항포관광지 엑스포주제관에서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은 ▲ 상호간 교류를 통한 유기적 협력관계 구현 ▲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군민의 문화향유 확대 노력 ▲ 기타 문화예술 진작을 위한 다양한 상호 지원 협력의 의지가 담겨있다.

석수근 경남메세나협회 전무는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매년 개최되는데 고성과 공룡엑스포의 풍성한 문화관광콘텐츠를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경남의 명소 고성을 찾을 수 있도록 재단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왕건 대표이사는 항상 기업의 나눔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경남메세나협회와의 업무협약은 공룡엑스포와 고성의 문화예술관광산업 활성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는 매년 다양한 주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채워진다. 국내 최초로 익룡이 나는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익룡이 날다’, 꽃으로 꾸며진 대형 공룡 포토존 ‘플라워사우루스’, 인기 캐릭터 브레드 이발소, 폐품을 활용한 예술작품 전시 및 체험 ‘정크아트’, 중국 최고의 기예단인 서커스와 화려한 불꽃쇼,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공룡 페레이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경남메세나협회  고성문화관광재단

Mecenat News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글 메세나 사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난해 11월 11일, 경남메세나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지역 문화예술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부문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우수기관 인증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BNK경남은행의 주도로 지난 2007년 8월 설립된 경남메세나협회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출범한 메세나 기관으로, 기업과

예술단체의 선구적인 매개 활동을 인정받아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제1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받았다.

출범 당시 79개 회원사와 10개 기업-예술단체 결연으로 시작한 협회는 현재 회원사 219개를 확보했다. 협회의 핵심 사업인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은 3년 연속 200개 팀 이상의 결연을 달성하며, 누적 2,400개 팀과 지원금 420억 원을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이밖에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콘텐츠 보전을 위한 ‘지역문화특화사업’,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나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한 경남메세나협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기업과 문화예술단체가 서로 상생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더욱 매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축적된 운영 노하우를 신생 지역 메세나 단체 및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와 공유하며, 문화예술 후원을 통한 기업의 사회공헌 실천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SG + MECENAT

ESG경영에 메세나가 필요한 10가지 이유



1 예술의 인지적 가치 발산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술 본연의 인지적 가치와 예술행동은 우리 공동체의 인식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기업의 친환경 실현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3 이해관계자 소통과 나눔

문화예술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 간의 문화적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대와 지역을 넘어선 공동체적 연대와 나눔이 확산됩니다.

5 근로자 인권 증진 및 만족도 향상

문화예술은 직원 만족도를 높이므로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기업신뢰도, 존중, 자부심, 동료애 등에 관한 항목에서 긍정적인 답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7 기업 가치 향상과 주주 이익 증대

문화예술로 형성된 기업문화는 윤리성과 신뢰를 강화합니다. 문화예술로 가꾸는 기업문화는 개개인의 윤리적 성숙을 통해 평판 위험, 인적 위험 등의 비재무 위험에도 대응하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9 시민 에너지 독려

기업의 ESG 활동에 예술의 메시지 생산력과 아이디어가 결합되면 환경·사회 등급이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는 시민 에너지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예술은 기업의 수익 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2 ESG 실현 노력에 대한 공감 확대

예술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은 기업의 ESG 실천 의지를 감성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4 노동과 삶의 균형 보장

문화예술은 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정신적 복지를 증진시키고 여가친화적 문화가 스며들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6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메세나활동은 예술을 매개로 지역사회 재생과 문화적 활력을 이끌어 냅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메세나활동은 공동체의 문화적 재생과 지역 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8 공급망 협력 기회 창출 지원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이슈를 내포한 예술 콘텐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메세나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쌓은 차별화된 신뢰는 ESG 시대에 새로운 공급망 협력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10 새로운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

메세나활동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MZ세대와의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지원 활동은 미래 자산인 4C를 배양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투자의 수단이 됩니다.



문화를 선물하면 기업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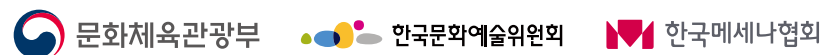
문화기업으로 가는 첫걸음, 바로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활용에 있습니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고 문화소비를 활성화하고자 도입한 정책입니다. 기업이 거래처를 위해 공연 및 전시 입장권, 도서, 음반, 미술품 구입 등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기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비용을 인정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문화로 인사합시다’란?

한국메세나협회는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활성화를 위해 ‘문화로 인사합시다’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를 활용하는 기업은 거래처의 마음을 움직이고, 조직 내부의 문화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문화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문화로 인사합시다’ 웹사이트 www.hello2culture.com | 문의 02-784-0952



2026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2026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사업이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과 경남메세나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ARTS & BUSINESS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보조금(국비, 도비, 시군비)으로 조성한 펀드지원금을 추가로 교부하는 Matching-Grant 프로그램이다.

2026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신청 안내

신청접수

접수기간 2026년 2월 10일(화) ~ 3월 6일(금) 18시까지(예정)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 제2조의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기타

의료법인, 학교법인을 비롯한 각종 비영리법인과 국·공립 대학교 기업 및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 조직(친목단체 성격의 조직 제외) 공공기업의 지역본부 및 지사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업 등

예술단체

경남도내 소재하는 단체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임의단체, 창작활동 실적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예술단체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주관단체 및 문화예술 시설 등

결연형태



1:1 결연

1개의 기업이
1개의 예술단체 지원



1:多결연

1개의 기업이
다수의 예술단체 지원



多:1결연

다수의 기업이
1개의 예술단체 지원

제출서류

기업 <매칭펀드 지원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예술단체 <매칭펀드 지원신청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지원계획서 및 신청서 서식은 경남메세나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심사기준

기업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역량, 지속적 지원 가능 여부 등

예술단체 사업 추진 계획, 교류협력 활동 계획, 과거 활동실적 등

지원금액

기업지원금과 펀드지원금의 1:1 매칭을 기본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펀드지원금의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접수

우 편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층 경남메세나협회 사무국

이메일 gnmecenat@gnmecenat.or.kr

문의

(사)경남메세나협회 사무국 055)285-5611~3

강미선

보다예술교육연구소
교육학박사

사진의 등장은 인상주의와 개념미술로 확장되면서 예술의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술가들에게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AI등장은 예술계의 패러다임을 촉진하면서 기존 창작 방식들이 전반적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서 일상의 반복은 문제가 없을가? 항상 틀에 박힌 생활이나 변화를 주도하기 쉽지 않은 환경에서 지루함과 무기력에 빠지기 쉬운 많은 이들이 ‘매너리즘(Mennerism)’에 빠졌다’ 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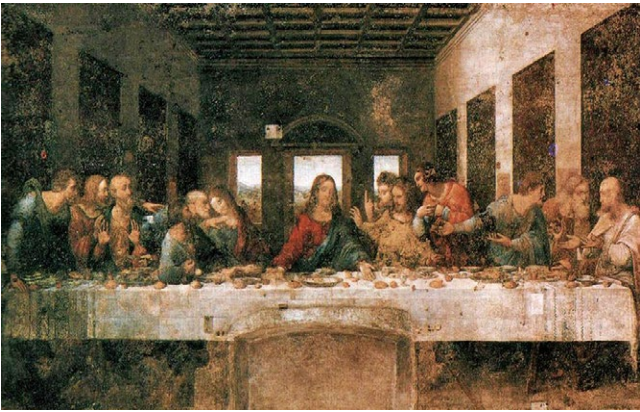
매너리즘은 이탈리아어 마니에라(Maniera)에서 유래한 용어인데 스타일과 양식을 의미하며 16세기 르네상스 후기 즉 과도기에 나타난 예술사조이다. 르네상스의 지나친 조화와 획일화된 표현의 추구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난 양식이며 이것은 예술의 의미와 다르게 현대에서는 익숙함에 길들여져 집중도 안 되고 설렘이 없는 패턴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일이 싫어진 건 아난데 일상은 지루하고 감정이 무디어지면 진심 없는 하루하루의 일상으로 삶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예술가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예술의 형식에만 치중하게 되면서 고정된 사고방식이 지배하게 되어 새로운 아이디어는 사라지게 된다. 심각한 문제는 장기간 동일한 작업에만 반복하게 되면 뇌의 전두엽 활동이 줄어 비슷한 스타일만 고집하게 되는데 이것은 창의적인 연결이 약해지는 원인이 된다.

매너리즘의 진실



틴토레토, <최후의 만찬>, 1592-1594, 캔버스에 유화, 365×568cm, 산 조르조 마조레 성당, 이탈리아 베네치아

르네상스시대 미술혁명 중 하나인 브루넬레스키의 원근법 발명은 본격적으로 회화의 도구로 적용되면서 마사초의 <성 삼위 일체>를 시작으로 그 시기 화가들의 표현에 대한 고뇌이자 탐구로 이어졌다. 이탈리아 철학자이자 건축가였던 바티스타 알베르티(Leon Battista Alberti, 1404-1472)는 “원근법을 모르는 자, 그림 그릴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러한 지나친 기하학적 요소들이 회화에 오히려 방해된다고 생각하여 색상의 농도와 채도에 의해 거리감과 공간감을 완성하는 공기 원근법을 고안해 냈다. <모나리자>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완벽한 표현에 대한 지나친 조화와 획일화된 그림들은 변화를 추구하는 이들에 의해 화가의 느낌을 살린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되었으니 ‘매너리즘’이라는 미술 양식을 탄생시켰다. 형태 왜곡은 물론 비현실적인 묘사와 불균형한 구도는 다양한 표현들로 시도되었으며 극적인 표현을 추구하는 바로크의 토대가 되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최후의 만찬>, 1490, 템페라, 700×880cm,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 이탈리아 밀라노

매너리즘 대표 화가로는 엘 그레코(El Greco, 1541-1614)에게 영향을 준 <최후의 만찬>으로 유명한 틴토레토(Tintoretto, 1519-1594)가 있다. 본명은 야코포 로부스티(Jacopo Robusti)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과 다르게 표현된 틴토레토의 <최후의 만찬>은 만찬의 식탁이 대각선 구도로 배치되면서 깊은 공간감으로 관람자가 그림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갖게 한다. 예수와 열두 제자보다 만찬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앞쪽에 두면서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노동의 축복과 의미가 돋보이는 조연들이 빛나는 독특한 화법이다. 가장 밝은 빛의 예수와 열두 제자들의 몸 뒤로 나타난 영적 빛은 어두운 공간을 밝히고 생생한 활력으로 넘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 틴토레토 미술의 정점을 찍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예수와 열두 제자를 중심으로 식탁이 화면과 평행을 이루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템페라 벽화 <최후의 만찬>과 유화로 평범한 일상의 저녁처럼 표현된 틴토레토의

<최후의 만찬>은 성경에 바탕을 둔 것으로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전날 열두 제자들과 함께 하는 예수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배경으로 한 그림이다.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광장 수상버스 정거장에서 바포레토 2번을 타고 바다 위를 5분 정도 건너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산 조르조 마조레 성당(Basilica di San Giorgio Maggiore)에서 틴토레토의 <최후의 만찬>을 직접 볼 수 있다. 흰색 대리석과 그리스 신전 같은 전면 구조의 성당 입장료는 무료이다. 절제된 분위기의 단정한 성당 내부는 경건함이 앞서는데 제단 앞으로 나서면 오른쪽에 틴토레토의 <최후의 만찬>이 걸려있다. 왼쪽에도 역시 틴토레토의 그림인 <광야의 유대인>을 덤으로 관람할 수 있다. 성당의 종탑으로 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로 타고 올라가면 되는데 종탑에 오르면 산마르코 광장뿐 아니라 두칼레 궁전과 대운하를 파노라마처럼 조망할 수 있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지중해 해상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베네치아는 예술을 후원할 수 있는 여유로 티치아노와 틴토레토 같은 걸출한 대가들을 배출할 수 있었다. 전성기였던 르네상스와 바로크 미술 사이에서 잠깐 등장했던 매너리즘 미술은 독창성이 돋보이는 예술가들의 뚜렷한 색채 표현과 느낌으로 강렬한 표현에 충실하였으며 이후 초현실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지금은 사회적 평가나 감정적 태도가 변화되어 창의적이지 않고 반복되는 습관에 갇힌 상태를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 변화가 필요한데 이것 또한 여의치가 않다면 작은 루틴에도 자극을 주는 상황들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적당한 휴식과 독서를 통한 습관은 영감을 얻는 자극이 될 수도 있지만 사고의 유연함을 가질 수 있는 성장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더불어 산책도 뇌의 연결성이 강화되는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매너리즘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해결책이기도 하다.

Mannerism

고요 속의 혁명가, 에릭 사티

침묵으로 음악을 다시 쓴 작곡가



낡은 피아노 위에 먼지가 쌓인 음표 하나,
그 음표는 들리지 않지만 묘하게 살아 있다.
에릭 시티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생명'을 느낀다. 그저 천천히,
마치 시간의 표면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듯 흘러간다.
그는 세상을 떠난 지 백 년이 넘었지만,
어쩌면 이 시대에 더 필요한 사람인지 모른다.
소음과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느끼고, 말하고, 드러내려 한다.
하지만 사티는 그 반대의 길을 걸었다.
감정을 비우고, 의미를 덜고,
음악을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그의 음악은 우리에게 속삭인다.

“지금, 고요할 용기가 있는가?”

변두리에서 시작된 삶

에릭 사티(Erik Satie 1866~1925)는 프랑스 노르망디의 작은 항구도시 옹플뢰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선박 중개인이었고, 어머니는 스코틀랜드계로 어릴 적부터 그는 언어와 문화의 혼합 속에서 자랐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파리로 건너온 그는 음악원의 정규 교육을 받았지만, 그곳에서의 평가는 냉담했다. “재능이 부족하다,” “게으르다,” “의욕이 없다.” 그러나 그는 정통을 따르지 않았을 뿐, 감각과 사유는 누구보다도 독자적이었다. 그는 일찍부터 ‘음악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서 중심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이후 평생 동안 사티는 그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중심부의 화려함이 아닌, 변두리의 고요 속에서 피어났기 때문이다.

벨벳 재킷의 사나이 - 일상의 고독한 의식

사티는 몽마르트르 언덕의 낡은 다락방에서 혼자 살았다. 그의 방에는 침대 하나,

피아노 하나, 그리고 수십 벌의 동일한 벨벳 재킷이 있었다. 그는 매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며, 같은 길을 걸었다. 그의 일상은 마치 한 편의 ‘느린 음악’처럼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는 평생 술을 즐겼고, 밤이면 파리의 카페에서 작곡 노트를 꺼내놓고, 술잔 옆에 놓인 피아노 선율을 적었다. 그의 일상은 가난했고, 고독했지만, 그는 그것을 ‘예술적 질서’라 불렀다. 그에게 생활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작은 의식이자 수행의 반복이었던 것이다.

사랑의 잔향 - 수잔 발라동과의 짧은 불꽃

사티의 연애는 단 한 번뿐이었다. 그의 사랑은 프랑스 화가이자 모델이었던 수잔 발라동(Suzanne Valadon)이었다. 그녀는 열정적이고 자유분방한 예술가였으며, 피카소와 폴루즈 로트레크의 뮤즈이기도 했다. 사티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고, 사랑에 빠진 지 며칠 만에 결혼을 청했다고 한다. 그의 사랑은 불처럼 타올랐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발라동은 곧 그를 떠났다. 사티는 평생 그 이별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고, 그는 이후 “나는 단 한 번 사랑했고, 그 사랑은 나를 남게 했다.”라고 적었다. 사티의 고독과 절제된 감정의 음악은 어쩌면, 그 잃어버린 사랑의 잔향이 천천히 식어가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예술가들의 변두리 - 피카소, 코크토, 드뷔시와의 교류

가난한 음악가였지만 사티는 시대의 가장 전위적인 예술가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파리 몽마르트르 ‘샤느와르(Le Chat Noir)’ 카바레에서 활동하며 시인, 화가, 배우들과 어울렸다. 그의 친구들 중에는 드뷔시, 피카소, 코크토, 뒤샹 같은 저명한 예술가들이 포함 되어 있었다. 드뷔시는 사티의 짐노페디(Gymnopédies)를 피아노곡으로 편곡하여 세상에 알렸고, 피카소와 코크토는 사티의 발레 음악 파라드(Parade)를 무대 위에 올리며 “현대 예술의 선언”을 함께 외치기도 했다. 그 무대는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렸지만, 그 사건 이후 사티는 ‘프랑스 음악의 이단아’로 불리게 되었다.

그는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았고, 대신 예술가들 사이의 긴장과 실험의 흐름 속에서 ‘고요한 조율자’처럼 존재했다. 그의 침묵은 예술가들 사이에서 묘한 울림을 만들었고, 그 울림은 훗날 존 케이지, 브라이언 이노, 모리스 라벨로 이어져갔다.

음악의 철학 - 단순함의 깊이

사티의 음악은 단순하다. 그러나 그 단순함은 철저히 계산된 것이다. 그는 “음악은 꾸밈이 아니라, 본질의 드러남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곡들은 화려한 전조나 기교가 없고, 짧은 선율이 마치 명상처럼 반복되고, 그 선율 속에는 철학적 침묵과 명상의 시간, 그리고 감정의 정화가 숨어 있다. 악보 속에서 그는 시인이었다. 그가 남긴 연주 지시어들은 음악적 명령이 아니라 철학적 은유이다. 예를 들면 “내면에서 미소 지으며”, “지극히 부드럽게, 그러나 바람의 걸처럼”, “고요하게, 그러나 내면에서 불타오르듯”, “피아노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듯” 이런 지시어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 그는 연주자에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태도와 상태를 요구한다. 그의 음악은 ‘어떻게’ 연주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연주하느냐를 묻는 것이다.

침묵의 유산

1925년, 사티는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방에는 여섯 대의 피아노, 그리고 수백 장의 미완성 악보와 낡은 우산들이 다 었다. 그는 가난했고, 외로웠으며, 그러나 끝내 자유로웠다. 그의 음악은 그가 떠난 뒤에서야 세상에 받아들여졌고, 그의 짐노페디(Gymnopédies)는 오늘날까지도 명상음악, 앰비언트, 그리고 현대음악의 근원으로 남아 있다. 사티는 화려한 기교보다 ‘멈춤’을 택했고, 그 고요 속에서 세상을 새로이 썼다. 사티의 음악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을 건넨다. “지금 고요할 용기가 있는가?”

소음과 경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조용히 자신을 들을 수 있을까? 아마도 사티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음악이 아니라 ‘침묵의 미학’일 것이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만난다.

이영령 소프라노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독일 라이프찌히 국립음악대학 졸업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국립음악원 졸업
이영령 성악연구소 소장



MZ PLA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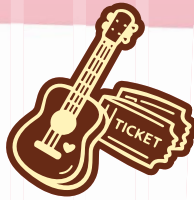


If Only

김한 테너 / 굿데이 남성중창단 대표

영화 If Only는 한 번뿐인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는 로맨스 판타지 작품이다. 음악가 사만다와 바쁜 사업가 이안의 사랑은 사고 이후 기적 같은 시간 여행으로 새로운 전환을 맞는다. 사랑을 놓치고 후회하던 이안은 다시 주어진 하루 동안 진심을 행동으로 증명하려 노력한다. 결국 사고의 결말은 뒤바뀌고, 살아남은 사만다는 그와의 시간을 마음에 품은 채 무대에 오르게 된다. 영화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후회는 과거가 아닌, 지금을 새롭게 살아가라는 또 하나의 기회임을 조용히 일깨워 준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이주희 공연 기획자 / 피아아트컴퍼니 대표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는 브라질 작가 주제 마우루 지 바스콘셀루스가 1968년에 발표한 자전적 소설이다. 다섯 살 소년 제제가 주인공이며 가난하고 외로운 환경속에서도 꿈과 상상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은 특시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선으로 본 세상과 사랑, 상실의 감정을 진정성 있게 그려내어 세대를 초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누구에게나 어린시절은 존재했고 그 어린시절에 겪는 일은 다양한 감정들이 있다. 그것이 사랑일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그런 감정들이 공존하는 삶의 복잡함을 겪으며 우리는 어른이 되었다. 어린이의 시각으로 보는 상실의 감정을 통해 성장을 배우고 한단계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는 제제를 보면서 고통이 성장의 필연적 과정이구나를 깨닫는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고통 속에 성장이 있다는 것을 때론 외면하고 싶지만 그런 시간을 때론 즐기는 어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삭막한 현실 속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책을 보며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거 같다.



PLAYLIST



나니아 연대기

이승하 문화크리에이터 / 화실 '시옷 스튜디오' 대표

나는 상상하는걸 좋아해서 판타지장르의 영화를 즐겨보는데, 특히 '나니아 연대기'는 전 시리즈를 몇번이나 볼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다. 특히 1편 '사자,마녀 그리고 옷장'에서 주인공들이 옷장을 통해 판타지 세계로 이동하는 장면이 있는데, 실생활에 있는 요소가 판타지세상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게 아주 재밌는 부분인 것 같다. 1편에서 눈의 여왕이 주인공들에게 나눠주는 쿠키는 무슨맛일까 상상하는것도 흥미롭다.

마치 어릴때 티비로 보던 텔레토비가 먹던 쿠키맛을 상상하던 것 처럼.

이 영화를 볼 당신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

“당신의 옷장 안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당신을 나니아로 데려갈지 몰라요.”



Honne - By my side

김태현 피아니스트 / 현란듀오 대표

사람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존재의 소중함을 잊기 쉽다. 일상이 반복되고 관계가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그들이 늘 내 곁에 있을 것이라 착각하며 고마움과 배려마저 '당연한 것'으로 흘려보낸다. 그러나 이런 무심함이 쌓이면 감정은 메달라 가고, 관계는 아무 말 없이 멀어지기 시작한다. 이 곡의 가사는 그런 관계 속에서 놓치기 쉬운 마음을 다시 일깨운다. “네가 있었기에 내가 버틸 수 있었다”는 고백처럼, 가사 곳곳에는 나를 지탱해 준 소중한 존재에 대한 절절한 감사가 담겨 있다. 세상이 어둡게 느껴질 때, 힘이 빠져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마음이 깊이 다쳤을 때 그 모든 순간마다 “네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메시지가 반복된다. 단순한 사랑의 표현을 넘어, 함께해 준 시간들에 대한 신뢰와 앞으로든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녹아 있다. 이 노래는 우리에게 묻는다. 늘 옆에서 힘이 되어 준 사람에게, 혹시 익숙하다는 이유로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지 않은 건 아닌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자주, 더 진심으로 “고맙다”는 마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뮤지컬 킹키부츠 - Raise You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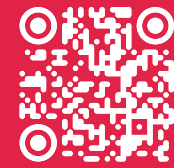
조은별 보컬 아티스트 / 몽인연극영화예술원 원장

뮤지컬 킹키부츠의 대표 넘버인 <Raise You Up>은, 지친 하루를 끝내고 퇴근길 밤공기 속을 걸을 때 특히 더 깊게 와닿는 곡이다. 이 노래는 단순히 신나는 음악이 아니라, 마음 한가운데에 묵직하게 자리 잡은 ‘나,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에 따뜻하게 손을 얹어주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현실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흔들림, 비교, 자존감의 요동을 향해 이 노래는 밝게, 그러나 진심으로 속삭인다. “너는 있는 그대로 괜찮아. 더 당당하게, 더 자유롭게, 그저 너 자신으로 살아도 돼.” 가사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마치 오래된 친구가 건네는 위로처럼 자연스럽고 솔직하여, 듣는 순간 정체돼 있던 감정을 끌어올리는 듯한 해방감을 선사한다. 하루의 무게로 기운이 빠진 날에도, 이 곡을 들으면 조금씩 발끝이 가벼워지고, 다시 한 번 ‘나답게 살아볼 용기’가 생기는 것 같다. 또한 이 음악에는 뮤지컬 특유의 생생한 에너지와 군무로부터 오는 집단적 응원의 감정이 그대로 살아 있다. 마치 수십 명의 배우가 무대 위에서 외치는 것처럼, 혼자 헤매고 있는 나를 향해 모두가 말하는 듯한 곡이다.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너를 들어 올려줄 거야. 그리고 너는, 그냥 너여도 충분해.” 바쁜 일상 속에서 콘텐츠의 홍수에 떠밀려 감정이 무뎌질 때, 이 노래는 다시금 나의 중심을 잡아 주는 작은 나침반처럼 작동한다. 명hani 누워 들을 때도 좋고, 출근길·퇴근길에 이어폰을 꽂고 걸을 때도 완벽하다. 어디에서든 듣는 내 마음을 ‘초기화’ 해주는 리셋 버튼 같은 곡이기 때문이다.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곡, 나답게 살아볼 용기를 주는 곡, 나다운 예술을 사랑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는 곡, 나에게 가장 선명한 위로를 준 곡이 바로 이 노래다.



경남 문화예술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접속해 보세요!



www.gyeongnam.go.kr/culture



FACE theDEPTH

Artistic Director: Unsuk Chin

Composer in Residence: Sir George Benjamin

Artists in Residence: Augustin Hadelich, Jakub Józef Orliński

MARCH 27 — APRIL 5, 2026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창원문화재단 2026 상반기 기획공연& 전시프로그램 하이라이트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1월 20일(화) 19:30 3·15아트홀 대극장

이태리 쓰리 테너 초청 공연

4월 중 진해문화센터 공연장

특별기획 I 조수미 콘서트

5월 9일(토) 17:00 성산아트홀 대극장

특별기획 II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5월 21일(목) 19:30 성산아트홀 대극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단 QR코드 혹은 창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2026 Season G 상반기 프로그램



WDR 쾰른방송오케스트라

3. 6.(금) 19:30

VIP석 12만원,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4만원



발레 <헨젤과 그레텔>

5. 8.(금) 19:30, 5. 9.(토) 15:00

R석 4만원, S석 2만원



이자람 판소리 <눈, 눈, 눈>

3. 27.(금) 19:30

전석 4만원



국립극단 <그의 어머니 Mother of Him>

6. 26.(금) 19:30, 6. 27.(토) 15:00

R석 4만원, S석 3만원



경남도립극단 정기공연 연극<반야 삼촌>

4. 9.(목) 19:30, 4. 10.(금) 19:30, 4. 11.(토) 15:00

전석 1만원



손열음 & 고잉홈프로젝트

7. 10.(금) 19:30

VIP석 8만원,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경남문화예술회관 누리집
바로가기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GYEONGNAM MECENAT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행복한 경남을 꽃피웁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정부가 인증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입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Arts & Business

- **결연사업** 기업과 예술단체의 1:1 결연을 통해 기업은 문화경쟁력을 높이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습니다.
- **예술단체 워크숍**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경영 및 회계실무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예술인의 기획 및 단체 운영 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회원사 지원 사업 Member Support Projects

- **찾아가는 공연** 기업 임직원과 고객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를 직접 기획하여 제공합니다.
- **문화공감** 예술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회원사에 우수 문화행사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 **문화경영도서** 문화예술을 기업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문화경영도서를 선정하여 회원사에 전달합니다.
- **예술 동아리 지원** 사내 문화예술 동아리 결성과 활동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예술활동 참여 기회를 늘리고 사기 진작을 도모합니다.
- **지정기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업후원금을 지정 예술단체에 전달하고 기업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회원사 메세나 활동 홍보** 회원사의 메세나 활동을 메세나지,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합니다.

문화 나눔 사업 Sharing Art

- **행복한 나눔공연**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이웃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 **즐거운 나눔티켓**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공연과 전시 관람 티켓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을 돕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합니다.

연구 및 홍보사업 Development

- **홍보지 '메세나지' 발간** 협회 홍보지를 연2회 발간하여 경남메세나의 사업을 소개하고 기업의 메세나 활동과 지역 문화예술 소식을 전합니다.
- **경남메세나포럼** 회원사 실무진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 **지역문화특화사업** 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원하여 경남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합니다.
- **찾아가는 메세나** 경남의 18개 시·군을 찾아가 문화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예술영재 장학금 수여와 지역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 **연구보고서 발간** 경남의 기업 메세나 활동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경남메세나대회 Gyeongnam Mecenat Awards

- **경남메세나대회** 지난 1년간의 메세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인이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 **경남메세나상 시상** 경제와 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고마움을 담아 공로를 시상합니다.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 ART IS TREE

- **기업사랑메세나콘서트** 경남메세나협회의 대중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화합과 소통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Gyeongnam Mecenat Members

경남메세나 회원사

회장사

BNK경남은행

부회장사

NH농협은행 경남본부
(주)우링에너지
(주)무학
범한산업(주)
(주)씨티알
우수AMS(주)
(주)인산가
임경숙
(주)한국아나세
(주)화인테크놀로지

이사사

경남스틸(주)
(사)경남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상남도 문화체육국
경원벤티크(주)
고성오광대보존회
(주)금아하이드파워
(주)리베라관광개발
산골농장(산청양계영농조합)
신화철강(주)
원광건설(주)
창원대학교 음악과
(주)화성G&(주)
대양산업가스(주)
청호산업(유)

회원사

가야BS(주) 가야문화축제지원위원회 가야오페라단 (주)거명인텍 거제시문화예술회관 경남개발공사 경남국제합창조직위원회 (사)경남기독문화원 경남도립미술관 경남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경남신문사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오페라단 경원여객자동차(주) (주)경한코리아 (주)고려이노테크 (주)고려철강 고운가이드치과병원 고운선치과의원 고운치과병원 광덕건설(주) 광신기계공업(주) (주)구구 (주)국토보상원 그랜드머큐어엠베서더 창원 그린산업(주) 그림갤러리(주) (주)금강종합건설 (주)금술개발 (주)기산산업 김순태치과의원 (유)김해공영 김해상공회의소 낙우산업(주) (주)남광디씨텍 남명산업개발(주) 남양매직(주) (주)느티나무의 사랑 늘푸른 요양병원 다몬롤링 당당한방병원 김해 (주)대경 대경건설(주) (주)대길이에프 대방스페이스스틸(주) 대선주조(주) 대성정보시스템 (주)대승엔지니어링 대신금속(주)	(합)대신전기공업사 (주)대중이엔에프 대주회계법인 경남지사 (주)대호테크 더 스페이스 갤러리 (주)덕광중공업 (주)도원리사이클링 (주)동구기업 동성정공 (주)동은화학 동진해금(주) 두남화학 (주)두산중장비센터 디엘모빌리티(주) 디씨엠(주) 디케이리크(주) 라운산업개발(주) (주)마창대교 (주)만보건설 명제한의원 몽고식품(주) 무림페이퍼(주) 문윤수치과의원 미르치과의원 미조종합건설(주) 미즈맘 여성병원 법무법인미래로 (재)봉림장학회 (주)부경 부곡스파디움 부산교통(주) 부성자동차학원 (주)부평디엔피 (주)북성산업 (주)사릭 (주)산호수출포장 삼우금속공업(주) 삼원동관(주) 삼일정보시스템(주) (주)삼전건설 삼정기업 (주)삼정터빈 삼흥열처리 삼흥테크(주) 상화도장개발(유) (주)서영시스템 선린자모의원 (주)성우 (주)성환금속	세라성형외과의원 (주)세북 세아창원특수강 (주)세양정공 (주)세종씨엔지 (주)세호 송죽전장 신광에이스전기(주) 신요푸드시스템(주) 신창기계(주) (주)씨노텍 아나파약국 아진기계 (주)애드테크 (주)에스 (주)에스에이치엔엠 (주)에이스코트 에코시스템(주) (주)엔지피 영광산업(주) (주)영신오토모티브 (주)영일정공 (주)영진테크 (주)오곡산업 오션커뮤니케이션즈 (주)육산아이엠티 원광산업석재 (주)윌템 유림건설(주) 의료법인성년의료재단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주)이나인파워텍 이수디엔씨(주) (주)이우 (주)이더불유코리아 이피씨 인산죽염(주) 인화정공(주) 임진각 (주)잇핀 (주)장생도라지 (주)장성E.P.S (주)정문애드테크 제일레스테크 (주)좋은콘서트 중앙건설(주) (주)중앙금속 (주)지엔티 진해성모병원	창원상공회의소 청아의료재단 최익수의원 추고쿠삼화페인트(주) 캠코 경남지역본부 (주)케이조선 (주)코앞건설(참신한건설) (주)코텍 태민산업(주) 태영엔지니어링 테라사이언스(주) 티케이지태광(주) (주)포스텍 푸주옥 파케이벨브엔지니어링(주) 하동 케이블가(주) 하이에어로리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하동빛드림본부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니전자(주) 한국정기공업(주) 한국제강(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김해사업소 한국태양유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주)한반도 (주)한창테크 (주)해드림엘피씨 해성메탈(주) 현대공영(주) (주)현대기업 현대로템 현대위아(주) (주)혜동 (주)호텔인터내셔널 흥기종합건설(주) 화영철강(주) 화이트치과 (주)흥인코퍼레이션 흥일기업(주) JK컨벤션웨딩 STX엔진(주) the큰병원
---	--	--	--

회원 가입 안내

가입대상	연회비	가입절차	
기업	200만원 이상	입회신청서 제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gnmecenat.or.kr	
개인	100만원 이상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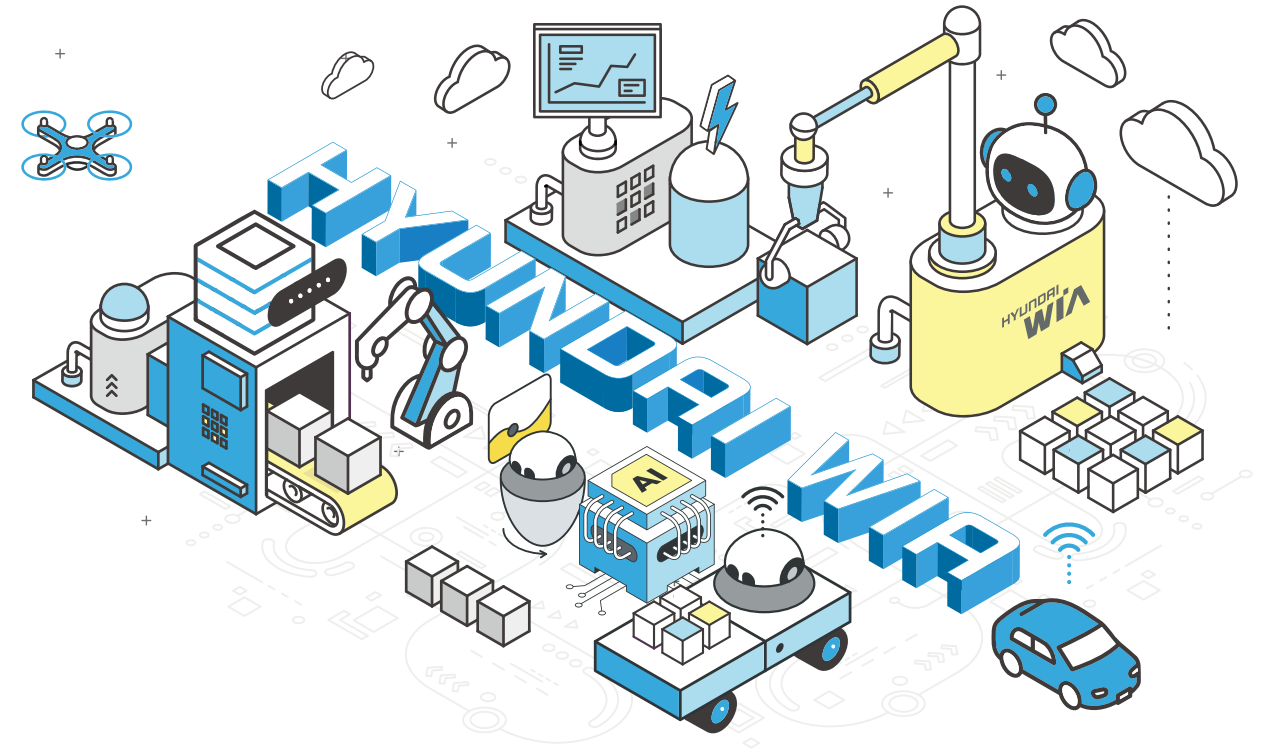
과당 ZERO 좋은데이



부산
갈매기 16

BUSAN GALMEGI

100%
국내산
햇개나무열매
부산 기장군



현대위아가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가치를 만들어 갑니다

CREATING VALUE
IN SEAMLESS MOBILITY



현대위아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혁신기술로 제조 플랫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통합열관리시스템



4WD • 전동화



물류로봇



협동로봇



주차로봇

모빌리티 부품

스마트제조 • 물류 솔루션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new
renewable
energy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고
인류와 환경을 생각하는 **KOEN**
대한민국 에너지의 새 지평을 열며
First Mover로 나아갑니다.

자연과 인류를 위한 과감한 행보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KOEN의 Clean & Smart Leader 정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탐라해상풍력 전경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지원 내용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인프라 투자
지역금융 기여도

2020-2025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경남·울산 지역재투자 최우수 등급 (6년 연속)

6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경남·울산 지역 고객의 사랑, 지역재투자로 보답합니다.
지역 경제와 고객행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BNK 경남은행

